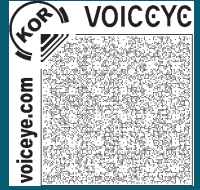


ISSN 2383-9872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2017년 가을



노들마라톤

(사)노들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광화문 지하역사 농성 1842일의 기억	
04	남겨진 1842일간의 거리에서의 이야기
07	사진으로 보는 광화문농성 1842일
10	1842일, 나의 광화문농성장 이야기
17	현수막과 깃발이 되어 함께한 1842일
19	광화문농성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고장님 인터뷰
24	[형님 한 말씀] 광화문 5년... 또 다시 시작되는 투쟁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112호 201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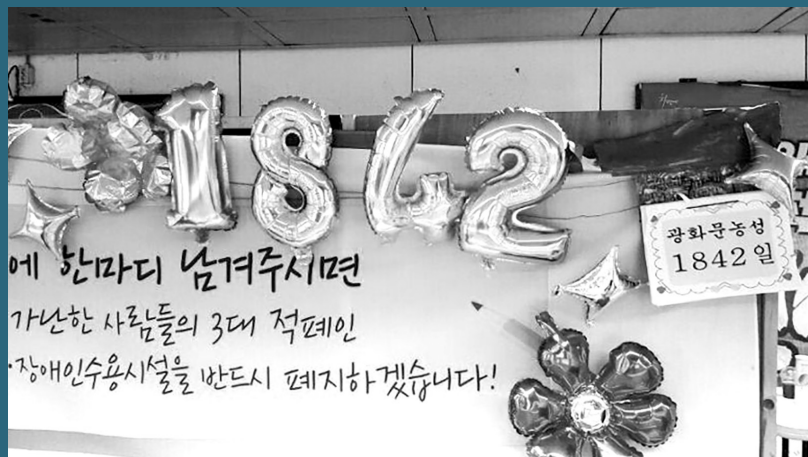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원공장「노란들판」·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지원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안연주 정소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02-518-1571)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26	공리소 차담회, 시설 잡감
31	[고병권의 비마이너] 국가는 장애화를 즉각 중단하라
35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시설 밖에서 보낸 나의 2년 6개월
38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이상석 님
41	24번째 노들 생일을 축하합니다
44	[노들이 안녕] 김장기, 임종운, 방재환, 최은화 님
48	노란들판에서 여름을 지내는 법
50	아낌없이 주는 워크숍 "쉬엄"

53	노들야학 낫수업을 소개합니다
58	[인권교육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61	배움의 한을 풀고 싶다. 진짜!!
64	'성(性), 마이웨이' 탈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67	제2회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를 준비하면서
70	소세지의 <육하는여자> 제작기
72	8번째(?) NONO 1st 종로보치아대회!!!!
74	간장과 기대 속에 찾아간 야학
75	노들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배움터
77	시각장애교사의 길

82	김종환 첫 음반 '새 길을 간다' 이야기
84	[노들 책꽂이] 광인, 심연을 받아들이다!
88	[동네 한 바퀴] 3분 거리 동네 친구, 어린이어깨동무
92	[노들은 사랑을 믿고] 박찬 동문님, 건강하시죠?
95	고마운 후원인들



1842!

광화문 지하철역사 농성 1842일의 기억

남겨진 1842일간의 거리에서의 이야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은
중단되었습니다.

한명희

살아갈 것, 놀고먹을 것,
들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노들아학에서 활동하는
그냥저냥, 명희예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생한 건지 어찌 시간이 5년이나 지나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5년이란 시간을 거리에서 투쟁하자고 약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성장의 현실은 불행히도 박근혜 정권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광화문 지하철역사 농성장의 하루의 시간들은 불행과 다행 사이를 부단히도 움직이며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모두 고생했다고 인사했던 악수와 포옹이 스쳐지나가는 삶의 배경처럼 지나갔고, 현실은 정말 5톤 트럭 두 대를 불러 농성장을 정리했습니다. 5톤 하나면 될 줄 알았는데, 농성장을 정리하면 눈물 한 방울 날 줄 알았는데 눈만 껌뻑이며 그날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필이면 정리하는 날 고장 난 광화문 지하광장 해치마당 출구 엘리베이터 출구 덕분에 그 많은 짐들을 광장 밖으로 몸에 이고 나갔습니다. 매일 광장에서, 역사에서 행사할 때마다 부딪쳤던 수위아저씨들도 만났습니다. 집회하려고 사부작거리고 있으면 괜히 어슬렁거리면서 어디에서 왔냐고 묻습니다. 그럼 손을 흔들며 “저예요”하면, “잘하고 가라”고 응답을 해주었던 광화문 역사도심관리과 아저씨의 수고했던 인사가, 영정사진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죽었냐고, 누구냐고 물어주었던 개찰구 앞 편의점 아주머니의 잔소리 같은 인사말이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정말, 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관한 면담을 했던 복지부와 서울시



헌데 명백한 제도의
희생자였던 그이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나라는, 장관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역사도심관리과 공무원들은 바뀌었지만, 하물며 함께 싸웠던 동지들도 떠나기도 했고 돌아왔지만 변하지 않은 몇몇의 자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광화문농성장은 그렇게 여러 번 바뀌었던 보건복지부 장관 중 2017년 현재 장관의 조문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건넨 사과를 믿었고 우리는 그 이후의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지금도 가능해 봅니다. 사실 다들 아주 찔떡같이 믿는 건 아니지만, 5년을 버틴 우리는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약속을 보여준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런 힘이 생기는 것만 같거든요.

장관들의 이야기를 하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각납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지 않은 저도 그가 장관이 아닌 지가 꽤 지났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름만 곱씹어 보아도 억울함이 왈락 쏟아져 나옵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그때. 2014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제도의 희생자였던 송국현 님의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국가인권위원회 앞 분향소,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집 앞의 세 개의 공간을 매일 저녁 지켰던 그 시간들이 억울했습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은 어떤 실수 하나, 삐끗함으로 연신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합니다. 헌데 명백한 제도의 희생자였던 그이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나라, 장관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광화문농성장이 차려지고 함께했던 18명의 영정사진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제도의 희생자 그리고 그 농성의 기간에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농성장의 시간은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또렷이 기억하고 분노하여 단단히 활동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농성장 전, 이 두 가지 제도의 희생자는 아마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적 이슈로 사람들이 기억해주기 힘들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화문농성장의 그 시간동안 우리는 그 힘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 여러 시간을 지켜왔지요. 5년의 광화문농성장의 시작도 끝도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고 결정했습니다. 그 5년의 공간의 부재를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도 서운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갈래의 일상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수레바퀴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중 쉬지 않고 어느 때는 삐걱거리며 돌면 바퀴 하나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른 한 부분이 모나지도 빠진 것도 아니니 그래왔던 것처럼 나의 하루를 사수하면 됩니다. 늦지 말고, 빵구 내지 말고, 썩어있던 그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들을 너무 남겨 두지는 말고 잘 정리해가면서 말입니다. 광화문농성장의 사진과 글들을 정리하면서 그 시간들을 좀 더 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시간이 증명하듯 5년의 시간은 다들 얼굴이 좀 늘어버렸습니다. 반반했던 이마가 주글주글 해지기도 했고 여튼, 얼굴들이 변한 시간만큼의 투쟁이었다니요. 신기합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했던 이 싸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5년의 시간동안 나는 어떤 시간의 일부를 함께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그 간극을 좁히고 내일 하루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필요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린 5년의 시간을 버티듯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버티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제도의 폐지가 완전히 눈앞에 펼쳐져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온 길보다 조금 더 멀어 보입니다. 들판 위의 누군가에게 모를 간곡한 호소가 아니라, 나부터의 다짐이길 바라봅니다. 내일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오늘의 뜨거운 안녕이었기를.

안녕!

앞으로 갈 길이
온 길 보다 조금 더
멀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모를
간곡한 호소가 아니라,
나부터의 다짐이길
바라봅니다.

광화문 지하역사 농성 1842일의 기억

사진으로 보는 광화문농성 1842일



- ❶ 2012.08 농성 2일째. 아주 무더웠던 여름날, 은박물과 몇 장의 선전물과 함께.
- ❷ 2012.09 농성 1달여쯤. 어느 정도 모양새를 꾸린 천막농성.
- ❸ 2012.10 2012년 10월 26일, 김주영 동지를 보낸다.

- ❹ 2013.07 2013년 8월 농성장. 이렇게 깔끔하다니.. 누가 청소를 했었군.
- ❺ 2013.08 농성 1주년. "사람의 온도 36.5"가 모여, 투쟁의 365일을 만든다."

사진은 이윤경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정리해주었습니다.



1



1



3



e



4



2



4



3



5



5

- 1 2013.12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 e 2014.05 2014년 4월 17일, 장애등급제 희생자 송국현 동지를 보낸다.
- 3 2015.07 “그린라이트”를 횡단보도 투쟁 고유명사로 만든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는 결국 만나지 못했다.

- 4 2015.08 농성 3주년. “살맛한 연대”의 밤
- 5 2016.01 장애등급제·무양의무제 “폐지당”

- 1 2016.06 세계인과의 연대. 세계사회복지자 대회
- 2 2016.12 박근혜 대통령 “하아~ 하아~” 우리의 겨울은 뜨거웠다.
- 3 2017.04 2017년 상반기 운동사회를 뒤흔든 “락카투쟁”은 4월 절정에 이르는데..

- 4 2017.08 드디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농성장에 오다.
- 5 2017.09 5년 만에 농성장이 없는 농성장에서 우리 모두, 여기.

1842일, 나의 광화문농성장 이야기

민아영의
광화문농성장

- 박근혜 퇴진운동이 한창일 때, 방송하는 날에 우리 처장의 김수연을
뵈러 왔음...

- 원의 준비나, ~~방송~~ 박사를 접할 때까 나중 보여 시경을 찍으며 축하할래
같이 카메라들고 동영상 찍었더니 복리나에게 도와치려 일.

- 지방 방송에서 이 많은 걸 어떻게 공개하는 거냐고 하는데, 그걸 또 (0분안에)
산재해서 끝난 듯했어... 아야 말고 된 도대체 바보야...

정수연의
광화문농성장

아버지랑 농성장을 같이 지켜서
너무 좋았어요 ^^ (정수연)

최영은의
광화문농성장

박사님들이 둥글스런게 한바다씩 툭툭하고
지나가면 날이 생각나네요.

정소영의
광화문농성장

5년의 농성 중 2년을 함께하였습니다.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때는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외치는 2016년도의 12월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광화문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는 중에 어느
시민 아주머니께서 박근혜 퇴진!!! 이라고 적혀있는 스티커를 보며 너희들은 개만도 못하는
것들이야! 라고 말하며 지나가셨습니다. 같이 있던 활동가는 그 말을 듣지 못했고, 저 혼자
듣게 되었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아주머니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제가 개만도 못한 게 아니구요. 아주머니와 생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건 생각의 차이라서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박근혜 퇴진을 원하는 저에게 개보다 못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개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시어 아주머니는 개보다 나은 건가요?

김동림의
광화문농성장

기억이 잘 안나,
박근혜 퇴진 때 광화문농장에서 캐리커툼(박사님) 사람들이
다 때려박았을 때.
입에 가래, 강에서 전차를 탔을 때, 박사님 잡으러 오기 위해
뽀빠이 노래 한 편이 동체에서 불을 박근혜 퇴진 스티커를 보거나
지팡이를 때려갈만한 사건.

박주원의
광화문농성장

집회 투쟁 나가 사수들 해 잡을 것입니다
농성장이 없어져서 서운해요
광화문 같 일이 없어서 투쟁이 없어서
서운합니다

김남옥의
광화문농성장

사람들이 글씨 써주는 거, 서명,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도와주고 그래서,
도화전... 뭐냐고... ^{사람들이} 농성장 보고 도와주고 나는 조금 감동했어요.
지나가네요.

김진석의
광화문농성장

지나가시는 분들 이런 것 외해나고 해산분으로 계시고
수고하신다고 방과후로든 가져라 그사리 분으로 계시면은,

서기현의
광화문농성장

2016년 겨울 어느날 야간사수를 하러
농성장까지 야간사수를 하러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천정에서 물이 툭툭 떨어
떨어질 때 다행이 농성장에서 15여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지만 물바다가 된 바닥에는 얼음까지
어는 상황이었다. 나는 하명희 선생님에게 야간사수를
맡기고 집으로 씩씩하게 가야만 했다



농성장을 지키던 몇몇 날들, 들었던 말들이 있다. 상상해본다. 그 때 그 사람들을 지금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들에게 뭐라 말할 수 있을까.

- 송국현씨 추모장을 지키던 날. 인권위 앞. -

조사랑 선생이 나와 교대하며 말을 건넸다. "아마도 이 형은 평생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보다 어제 오늘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시설에서 나와 살고 싶어 하던 형이었는데. 얘기도 많이 못 나누고.."

이른 아침. 멀리서 휠체어가 다가온다. '아, 씨.. 진짜.. 내가 진짜.. 아, 씨 진짜.. 내가 진짜..' 한 아주머니가 30분간 종로에서 혜화까지 이어지는 점심·저녁 식사배급 일정에 대해 말하고 또 말한다. 나도 질 새라 장애등급제의 실상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다시 아주머니의 종이접기 자랑이 30분 이어졌다. '아.. 근데 나 종이 접기 진짜 잘하는데.. 이거 **에서 배웠는데..' 분홍종이배 10척을 선물 받고 다시 30분. 아주머니에게 이름도 붙이지 않은 채 병원에 남기고 온 아기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일단 노들야학 홈페이지 주소를 종이에 적어 드렸다.

조금 후에 인·권·위 앞 은행경비원이 한 판 할 기세로 나온다.
"내 조카도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버젓한 사업장 앞에서. 이렇게 불편 주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 밀리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에 격앙되게 말했다.
"매일같이 불편을 참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 고쳐져지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만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분을 다시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네, 아저씨는 경비 일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제가 불편하여 이 말을 해야 하는 거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쁜 제도로 불편이 아니라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 바꾸게 불편하도록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잘 아셨죠?)

- 한 번은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던 중년남자가 있었다. -

"이거 해봐야 뭐합니까? 의사새끼들 하고 권력 있는 놈들하고 또 짜고 지들끼리 헤쳐 먹을 게 뻔해요.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니깐요. 당신들 쓸모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또 있는 놈들끼리 헤쳐 먹는다고요!!"

(아파보이네오. 그래도 여기가 아니라 거기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화를 낼 수 있어야 할 곳ियो. 저도 잘 하진 못하지 만요.)

- 한 버스가사아저씨도 기억난다. -

"나도 많이 해봤어요. 가서 봉사도 하고 해봤는데 말입니다. 잘해줘도 결국 받아 먹을라고만 하지 말도 잘 안 들어요. 대들고 기어오르다니깐요. 어휴, 이젠 손 땀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이 말이 궁금해요. 정말로.)



"여기 교보문고가 어디 있어요?"

"교보문고는 이쪽으로 가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생강 찌금 부담스런^^ 미소를 띄고) 자, 교보문고 가는 길. 이 글 읽으면서 가시면 더 좋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박근혜 재권 초총상위 라인 앵은 무렵 농성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쁜날 태극기 부대 (박근혜 응원단체) 등이 지내면서
목성과 뽕뽕채소 등 무지막저한(?) 팻말도한 행사했습니다.
아직도 2년만 새각리면 1인씩할 정도로 차가 쾡쾡합니다.



광화문 농성장 장장 5년 간의 투쟁의 끝.. 1842일 쯤 날이 왔다고
꿈만 같습디다. 20여일 지난 지금 광화문 농성장을 생각해보면 여러일들이 생각납니다.
"장애등급제, 무양외무제 폐지를 위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외침을
처음할 때 왜이리 많은 꼬이고 앵들은 화끈거리던지.. 그거를 2년째 ...
입이 짹 짹 불는 권화 부양외무제, 장애등급제 알고는 있지만 누군기에게 서명드리기
속쓰겠지만 선명도 드리던 그런 기쁨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공동모듬의
처럼들처럼 루 시상에 계시는 문 00보 문재민 대통령 뽕났으니 1년간
기다려 보겠 다라고 얘기 해주시던 이용자님 무양외무제로 자립의 의지가 있으나
자립을 못하시던 그 분이 무양외무제 단계적 폐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만되겠다 1년 못기리겠다. 앵타들은 더러 뽕났디다.
광화문 농성장은 앵미졌지만 속의 투쟁은 계속 되여야 하는 어유일거라 생각됩니다.



광화문 농성장..
처음부터 없어야 했고, 진작에 사라져야 했지만
이제야, 1842일이 지나서야 없어지는 게 시원+섭섭
부디 광화문 농성장이 생긴 이유와 1842일간 농성의 기억들이 헛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길~

: 안흥경의
광화문농성장

내가 사람들에게서 서명을 해달라고... 할아버지가 내앞에 서더니
돈 5만원을 줬다. ~~분금 보태라고~~ 기피사먹이라고,
사람들 많으면 갈 땐 때는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간다.
^
서명하는.

: 조재범의
광화문농성장

5년의 시간 중 3년이라는 시간을 저도 함께해서 복돋고 행복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복양의무제가 꼭 폐지되어서 개선하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행복이 보장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애등급제나 복양의무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저도 작은 힘이나마
끝까지 보태며 노들 식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등급제 복양의무제 폐지 공약을 꼭 지켜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세요.

: 김민호의
광화문농성장

광화문농성장에 개인적으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왜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하는지 이유는 알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의문점이
생겼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노란들판 8년 동안 근무하고, 현수막을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다른 시선들이 보였습니다. 부양의무의 탓에 걸려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사례를 보며, 이 제도가 복지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정당한지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나 가끔 광화문을 들릴 때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1842일을
지키는 것을 보며, 인내와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그들의 노력과 눈물이 오늘날의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해를 못해서 그들을 비난하겠지만, 그들도
살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복지는
동정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사회 제도입니다. 그것이 너무 왜곡돼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폐지,
장애등급 폐지가 절실합니다. 이런 제도는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없어야 할 제도입니다.

광화문농성장 1842일의 기록은 앞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어 되지
않게, 지금보다 복지제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의미 없이 쓴다면 시간의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1842일의 시간은 투쟁과, 노력이 함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조상필의
광화문농성장

2017년 1월 27일

광화문 일대가 박근혜 퇴진 촛불로 가득 메워질 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농성장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멀리 고향(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촛불집회와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를 아껴주셨던 수녀님들과 이웃집
지인들도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반가웠던 사람들의 방문이었고
좋았던 기억이었네요.



: 권민희의
광화문농성장

"취업과의 동거"

광화문 농성장에서 야간사수님 밤에 쉬와 함께 숙박함 ㅠ_ㅠ
힘들고 무서운 밤, 으스스한 밤은 보냈... - 권민희 -

: 이은애의
광화문농성장

2017년 2월 27일 처음 광화문 농성장은 저보다. 그동안 만조만 조운 기사에서만 보던
정말 가슴이 먹먹했다. 수많은 명성사님들이 왜 이토록 우리가 싸워야하는지엔 대관
대답을 대신 해주는 듯 했다. 명성사님 하나하나 사연마다 ~~확~~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얼마나 취약한지 대관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광화문 농성장 방문 이후
나는 투쟁의 열의가 생겼. 투쟁의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

: 이상용의
광화문농성장

광화문 농성장에서 너무 아쉽고 마음 아팠습니다.

다음에 또 저러의 농성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박세영의
광화문농성장

광화문 농성장 1842일. 장애등급제 폐지 내 친정에서 똑같은
문제가 저와 ~ ~ ~ 야간 사수님이 소재님이었는데 소재님을 혼자
두는 밤이 이... .. 하루 밤이 되지 않았구나. 나는 사랑하기
많은 동동 글렀다... .. 내사 내 친정이 똑같은 일은 내는 처음 봄...

찬찬의
광화문농성장

농성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고생 끝에 낙이라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성취를 해서
우선 축하드리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의 모티브 속에 의미에 맞게 잘 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약 없이 세월이 흘러 정권이 바뀌고 탄핵까지 접하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를 새삼 또 느끼게 합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 장애인들을 위해 不撤晝夜 힘써주시는 여러분 모두 존경합니다.

유지영의
광화문농성장

1842일 중 5일 밤을 농성장에서 야간사수를 하며 혼자 보냈고, 2017. 8.13일
5일째 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센터판이 농성장을 사수하는 날이었고,
저녁 8시쯤 농성장을 마무리하였다. 여자 혼자 농성장에서 야간사수 하는데
걱정 되었는지 소장님께서 농성장에 방문하였다. 저녁 경 야식으로 치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걱정 많고 영은 들어가시라고 말씀하며
소장님과 활동가들을 보냈다. 잠 잘 준비를 마치고 누웠지만 사람들
발걸음 소리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노래를 들으며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고 차츰 방수가 들었다 거의 12시가 다 되었을 때 남자
목소리인 자은 목소리가 들었다. 천아 운은 산뜻? 두드리며
"저기요, 계세요! 잠 못 들었나 봐서 음악 볼륨을 줄이고 가만히 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안에 계세요."
무슨 뭐가 공명공명' 목소리들이 이야기해서 뒤에 말은 듣지 못했다
순간 너무 무너졌고 내가 혼자 있다는걸 상대에게 알리면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 숨죽이고 있었다. 천아 앞에 앉는거 같은데...
그림자나 반소리, 움직임 없이 말소리만 들려서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혹시 역무원이나 쏘아내 조심스럽게 참대에서 내려와
문 앞까지 경어무셨고 지퍼를 열려 볼 통까지 안내서,
바닥 엮드려 작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 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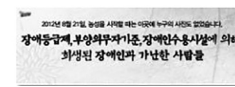
광화문 지하역사 농성 1842일의 기억

현수막과 깃발이 되어 함께한 1842일

이 이미지는 5년 농성 기간 동안 깃발이 되어,
현수막이 되어 함께 싸웠던 노란들판의 작업물들입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수리아)_110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이윤경)_0824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한명희)_0925-3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_081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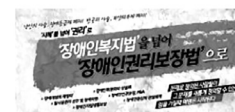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_0822-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_09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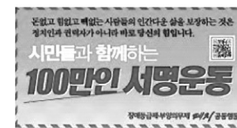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_0903-5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_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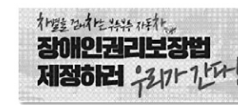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_1116-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네티기)_072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_0418-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윤경)032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다운)051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1214-1



전장연0617-2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420공무원(최재민)0414-1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정다운)1216

2016년 부글부글 결심대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0705

이것이 우리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0927-12

박근혜 퇴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1130-2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1130-1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430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819-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820-5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822-23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1202-1

장애등급제 폐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다운)0830-1

장애등급제 폐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다운)0905-2

장애등급제 폐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1127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0926-4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0114-2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0818-5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0928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1130-7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217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520-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820-2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822-2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1124-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1203-3

장애등급제 폐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다운)0830-2

장애등급제 폐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다운)1218-1

장애등급제 폐지
전정연(농성현수막)0817-2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양유진)0817-2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0302-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0927-3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1130-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명희)1130-9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411-2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609-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820-4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822-22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1126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0823-9

장애등급제 폐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정다운)0905-1

장애등급제 폐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1105-2

광화문 지하역사 농성 1842일의 기억

장애인 복지의 '구체제' 무너뜨릴 '종자돈'을 얻었다

광화문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고장남 인터뷰

하금철
<비마이너> 기자.
몇 년 만에 다시 야학 수업을 하고 있는 야학 교사이기도 함. 학기 초에는 수업이 너무 재밌었는데, 갈수록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우리의 힘으로 정부와 협상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었다”

5년 동안 박근혜의 청와대 코앞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장애인운동의 진지, 광화문 농성장이 9월 5일 문을 닫았다. 궁금한 게 많다. 문재인 정부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완전 폐지의 구체적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왜 농성을 중단하는지? 농성 중단 이후에는 어떻게 투쟁을 이어갈 것인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만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정연) 상임대표이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그를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거침없는 대답을 쏟아냈다. 에둘러 갈 것 없이, 직접 그의 말을 들어 보자.

하금철 농성중단 소식이 다소 급작스러운 감이 있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가 문재인 정부 공약에는 담겨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농성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나?

박경석 우리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시설수용 정책을 장애인계의 3대 적폐라고 말해왔다. 만약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인정했다면, 1차 종합계획은 우리에게 배신을 때린 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법적폐, 언론적폐 등 굵직한 사안들만 말해왔지, 우리의 사안을 적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현실적인 거리라고 생각한다. 그 거리가 반영된 것이 지난 8월 10일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다.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농성을 중단하는가? 정부는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해서는 1/3 정도는 하겠다고 말했다. 왜 1/3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의료·생계급여다. 그 중에서 1차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시기(2018년 10월)부터 하겠다고 한 것이지만.

하금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아닌가?

박경석 의료와 생계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에 한해 소득 하위 70%에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을 폐지라고 말한다면, 언어도단이요 사기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한 사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작점으로 볼 것이냐는 해석의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은 앞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미 제시되었는데,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임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게다가 박근혜 복지부 장관은 그 전 장관들과 다르게 일정을 다 공개해 놓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도 찾아갈 수 있었다. 거기서 장관이 도망가지도 않고 우리와 면담하겠다는 약속을 해 버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8월 25일 농성장 면담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위원회'와 '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금철 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복지부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을 것 같다.

박경석 정부의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때문에 농성 중단이 곧 투쟁의 포기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하더라도 농성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은 없다. 농성은 굳이 말하자면 양념이었고, 결의의 순간이었다. 애초에 이 농성은 2012년 대선 국면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후보들의 공약으로 받아내자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되고 사기를 치기 시작하니깐 5년까지 길어진 거다. 박근혜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농성 시작도 힘

들었을 것이다. 이런 조건들을 농성 집행부, 그리고 농성 참여단위 회의 등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을 내렸다.

하금철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후 현재 조건은 농성에 돌입할 때와는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박경석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2012년 대선 때보다는 훨씬 더 성숙되었다.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농성을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점이 아니다. 어찌보면 정부가 발표한 부양의무제 폐지 계획도 우리가 지금껏 싸워서 그나마 따낸 것이다. 문재인 임기 5년 동안 4조5천억 이니까 1년에 1조도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진짜 푼돈이지만, 이걸 종자돈으로 해서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하금철 박근혜 복지부 장관은 사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인사다. 짧은 시간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박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한다면?

박경석 부양의무제에 대해 그 전 어떤 장관보다 잘 알고 있었다. 농성장 면담 당시 발언 중에 1차 계획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2차 종합계획 발표(2021년) 때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점은 높이 살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반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형표 장관은 아주 비겁하고 무책임한, 복지를 팔아먹은 장관이었다. 후임으로 들어온 정진엽 장관은 복지가 뭔지, 뭇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그냥 의사일 뿐이었다. 그에 비하면 박근혜 장관은 초기에 감동은 줬는데, 그 감동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등급제 폐지는 종합판정체계가 핵심 쟁점...
장애인 소득보장액 연간 5조 마련해야**

하금철 복지부가 말하는 '단계적 폐지'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이다. 공동행동 차원에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는가?

박경석 굳이 비교하자면 부양의무제는 단순하다. 생계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되니까. 반면 등급제는 전달체계와 평가의 문제가 있다. 어떤 도구로 평가할 것인가, 평가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와 관련해 평가할 것인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에서 등급제가 작동하는 제도는 77개다. 복지부는 이 중 6개(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야간숙회, 응급안전)에 대해서는 등급제를 대체하는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중 활동지원서비스는 이미 별도의 서비스인정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등급제가 폐지됐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이 판정도구에 의해 서비스가 인정되었을 때, 필요한 양만큼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국 이것도 예산의 문제다. 거주시설지원은 현재로는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대상인데, 정부는 이것도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거주시설은 신규입소를 차단해 궁극적으로 폐지할 영역이지 종합판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 51개의 감면할인제도가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서 주겠다고 한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도 1,2,3급과 4,5,6급으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 용어만 중증, 경증으로 바꾼 것 뿐이다. 우리는 이런 제도들도 종합판정체계 안에서 처리할지 말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20개는 '별도기준 마련'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장애인연금이다. 이건 복지부 입장에서 봤을 때 중증/경증으로 나누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면 지금은 1,2급과 중복3급까지만 주고 있는데, 지급 대상을 중증(3급)까지 확대하면 1년에 예산이 5천억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별도기준 마련'이라는 말로 살짝 유보시킨 것이다.

하금철 그렇다면 장애인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박경석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제도다. 다른 기준 적용할 것 없이 개인소득만 평가해서 가난한 사람이면 주고 돈 많은 장애인이면 안 주면 된다. 이렇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장애인개발원의 연구도 나와 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돈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거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평균은 1.71%인 반면, 한국은 0.39%에 불과하다. 평균에 맞추려면 한 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합친) 소득보장액이 5조는 되어야 한다.

등급제 완전 폐지 이후 전달체계는 개인별지원체계 구축과 공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의 두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개인별 서비스 욕구와 필요도를 반영해 서비스 양을 결정하고, 서비스 전달기관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비스 전달기관은 민간단체만 있을 뿐이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금철 공공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박경석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형태로 가자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 계획에는 보육과 노인 돌봄 영역은 포함됐는데, 장애인 영역은 빠졌다. 민간부문의 경쟁체제로만 굴러가는 장애인복지 영역을 이제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은 가치를 전환하는 싸움”

하금철 광화문 농성 5년의 시간이 장애인운동 역사에 남긴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박경석 그 전까지 해오던 투쟁과 비교해보자면,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는 이미 했어야 할 것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문제다. 활동지원 예산 확보 요구도 서구에서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다. 반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탈시설 등의 사안은 가치가 전환되는 문제다. 가족부양 이데올로기,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친 평가제도,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그들 주변에 생긴 거대한 카르텔, 장애인의 삶을 이윤 착취의 도구로 만들어 온 역사 등에 맞서는 거대한 전환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겹다거나 억지로 견뎌온 시간은 아니었다.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구체제를 전복하는 진지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하금철 농성 중단 이후 투쟁은 어떤 방식으로 지속되나?

박경석 서명운동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시민들을 만날 것이다. 또한, 십만 명 시민들이 청와대로 보내는 엽서를 조직해서 '손가락 혁명'을 실현할 것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시설수용 폐지를 위한 행진'을 매달 한 번씩 할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 요구 투쟁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버스타기 투쟁을 해서 41번을 했다. 그 정도 하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도 완전 폐지되지 않을까? 문재인 임기 내내 한다고 해도 60번만 하면 된다. 하하하.

하금철 농성을 중단하는 9월 5일, 전장연 출범 10년을 맞는다. 전장연은 지난 10년간 제도화된 장애인단체의 관성을 뛰어넘어 현장 대중투쟁 중심으로 장애인운동을 개척해왔다. 이뤄낸 성과도 많았지만, 대표로서 한계라고 느끼는 지점도 있을 것 같다.

박경석 제도 설계에 대한 치밀함이 부족했고, 투쟁의 성과를 투쟁했던 당사자가 갖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소외되어온 문제가 있었다. 이 또한 우리의 실력 부족의 문제일 수 있지만, 대중운동은 제도 내부로의 진입만을 고민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제도 내부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 밖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제도와 제도 밖 운동을 가르는 경계를 허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위치의 전환이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대중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 원칙을 버리지 않는 전장연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비마이너>에도 실렸습니다.
** 글과 함께 실린 사진은 정택용 님이 찍은 것입니다.

형님 한 말씀

「광화문 5년... 또 다시 시작되는 투쟁. 김병학; 노들야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21일 ~ 2017년 9월 5일 광화문 농성장이 5년째 지나 접었습니다. 5년동안 을 지켜온 광화문을 굳게 지키시느라 우리 동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지들의 연대여 힘이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의 농성장이 지금까지 보존이 잘 되어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5년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24시간 변종으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힘차게 달려온 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광화문 농성장이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땐 농성장에는 단 한분의 영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성 5년 동안 18분들의 영정 사진들이 생겼습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에... 그만큼 이 사회에선 중증 장애인으로써 가난한 사람으로써 살아가지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이 사회 중증 장애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지만 이 사회는 그걸 허락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나 이젠 변해야 합니다. 이젠 우리들도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빼앗긴 권리들을 되찾아 인간답게 삽시다. 장애가 있다고 차별 받지 말고, 가난하다고 더 이상 소중할 죽음이 없었잖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5년이란 광화문 농성을 해온 것입니다. 이젠 광화문 농성장을 접고,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변함없는 요구들인 「장애 등급제, 복양 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변함없이 요구하면서, 투쟁하면서 갈 겁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반드시 우리들의 요구들을 여러분의 굳은 투쟁으로써 쟁취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사회에서 장애가 있다고, 가난하다고 차별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삽시다. 그런 긴 시간동안 빼앗긴 우리들의 인권을 찾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는 그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듭시다. 2017년 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가자는 투쟁도 이번 추석 명절에도 변함없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5박6일로 촛불을 치고 이동권 투쟁을 했습니다. 장애인들도 고속 버스를 타고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가고 싶다고, 고향까지 갈 수 있는 고속 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서명도 받고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커경차는 사람들에게 이사회에... 강남 고속 버스 터미널엔 수 많은 고속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도 있었지만, 정작 중증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고

속버스는 단 한대도 없었습니다. 단 한대도...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명권과도 이어지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명절 때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왔서 이렇게 이동권을 달라고 외쳐야 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답답하고 말이 안 나온다. 이 이동권은 꼭 장애인만의 이동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것이 이동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조건이 안 맞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런 말들만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는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설퍼로 끝나는 데도. 이런 한마디로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그들의 머리에는, 생각에는 아예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 돈과 하겠다는 의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동권도 우리들의 투쟁으로 꼬옥 쟁취하여 내년 명절 때는 우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고속버스 타고 고향 가서 사랑 하는 가족들과 정을 나누고 조상님의 산소에 성묘도 하고, 여행도 가고, 전국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꼬옥 만들어 봅시다. 더 이상 명절 때가 되어 고속 버스 터미널에 나가 외쳐서 삽시다. 더 이상 긴 시간동안 빼앗긴 우리들의 이동권을...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들을 찾읍시다. 중증 장애인도 배려 하고 싶다. 중증 장애인도 고속 버스를 타고 명절 때 고향에 가고 싶다. 중증 장애인도 전국 어디든지 차가 차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도록 이동권을 확보하라. 중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해 주십시오. 투쟁!

공리소 차담회, 시설 잡감

박정수
노들장애학공리소 연구원



‘노들’에 온 지 1년 반이 넘어 간다. 작년에는 『비마이너』 객원기자로 생활했고, 올해는 노들장애학공리소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다. 공리소 핑계대고 『비마이너』 기사 작성은 거의 못하고 있다. 미안해 죽겠지만, 유능한 신입 기자가 들어와 한 시름 났다. 염치없이 『비마이너』에 붙어 있는 이유는 편집회의나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얻는 현장 소식과 활동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다. 지금은 멈춰 있는 내 안의 글쓰기 기계가 다시 움직일 때 『비마이너』와 활발히 접촉할 날이 올 거라 믿는다. 노들장애학공리소는 올해 3월에 출범한 장애학 연구기관으로, 유리건물 4층 비상계단 옆방에 있다. ‘공리소’란 이름에 담긴 깊은 뜻은 홈페이지(<http://goongree.net/>) ‘소개글’에 나와 있다. 주된 활동은 장애학에 관한 세미나와 강좌, 토론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솔직히, 여기서도 제 역할 못하고 있다. 10여년의 연구소(수유너머) 활동을 끝내고 ‘노들’에 왔는데, 또 연구소 활동을 하려니 의욕이 불타지 않는 걸까? 아니면 장애학이 아직 내 것 같지 않아서일까? 강좌도 열고, 새로운 활동도

창안하고, 글도 많이 쓰면 좋을 텐데, 슬럼프인지 굶뜨게 지낸다.

지금은 펼칠 때가 아니라 새로 배워야 할 때라고 자위해 본다. 노들장애학공리소는 분명 새로운 인문학을 개척하기 더없이 좋은 기관이다. 장애학을 공부할수록 전에 공부한 철학과 인문학의 개념들이 시험대에 올려진 것 같은 긴장을 느낀다. 장애학은 단지 인문학의 소수 분과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과 경계를 다르게 사유하도록 강요하는 새로운 인문학의 블루오션이다. 또한 한국 장애인 운동의 중심지인 ‘노들’이야말로 장애학하기 딱 좋은 곳이다. 야학,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교육장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과 소통할 수 있고, 전장연과의 연대를 통해 장애인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이론의 시험대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입지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이 ‘공리소 차담회(茶談會)’다. 한 달에 한 번 장애인 운동, 소수자 운동 활동가를 초대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을 듣고 담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다들 너무

바빠 지금까지 겨우 세 번밖에 못했지만, 수험생 ‘인강’ 들듯, 족집게 ‘과외’ 들듯 농축된 배움의 호사를 누리고 있다.

특히,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하 활동가와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에 대해,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푸른숲, 2010)로 유명한 김원영 변호사(前 국가인권위 장애차별 조사관)와 정신병원에 대해 담화를 나누는 게 기억에 남는다. 국가인권위 연구사업 차 세 차례 장애인 수용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했는데, 그때 든 상념과 의문을 차담회에서 풀 수 있었다. 2010년에도 미신고 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한 적 있었는데, 그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7년 전의 기억 속에서 장애인 시설은 감금, 폭력, 노역, 비위생, 비리, 횡령, 시설 폐쇄, 전원조치에 맞서 “애들 엄마”라고 자칭하는 원장의 악다구니가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인권 침해의 현장이었다. 그에 비해 이번에 본 시설은 완전 평온해 보였다. 대체로 우리 집보다 깨끗했고, 폭력

이나 감금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아무런 드라마도 없다는 점이, 어떤 사건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 그 완전한 무위의 평온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신요양원이었다. 끊어졌다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면담자와의 소통의 끈을 붙들고 씨름을 하다 문득 중앙 거실로 오후 햇빛이 쏟아지는 걸 보았다. 그 햇빛을 등지고 수십 명의 생활인들이 초점 없는 눈빛으로 팔을 흐느적거리며 맴도는 게 보였다. 좀비 같았다. 그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다. 다른 두 곳의 중증장애인 시설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좀 더 규모가 작고,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잘 관리될 뿐, 인간적 삶이 아니라 사육되는 삶이라는 점은 같았다. 자고, 일어나고, 먹고, 싸고, 멍하니 허공과 TV를 응시하다 또 자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생활지도사의 감시 속에 시설 밖 사람들과는 물론이고 거주주들 간에도 우정이든 갈등이든 아무런 인간관계가 형성

되지 않았다. 관리 편의를 위한 신경안정제에 중독되고 오랜 시설생활 자체에 중독되어 무위의 평온과 무의미한 안전을 강요받고 있었다.

첫 번째 시설조사 후 총평 시간에 나는 “좀비 같았다”는 끔찍한 단어로 내 느낌을 전했다. 그러자 정신장애인 인권에 조희가 깊은 대학교수라는 분이 “다른 정신병원에 비하면 살 만한 곳이던데요”라며 다른 느낌을 전했다. 이 감각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 교수는 건물 바깥에서 면담을 진행했는데, 공간적 차이에서 생긴 감각의 차이일까? 아니면 다른 시설과 이 시설을 비교하는 감각과, 시설의 삶과 나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감각의 차이인가? 혹시 그 교수는 그 차이를 전문가의 ‘익숙함’과 초보자의 ‘순진함’에서 비롯된 걸로 이해하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탈시설을 염두에 두지 않는 시설 내 사회복지사들의 ‘익숙한’ 감각과 그건 얼마나 다른 걸까?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어지러운 물음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김정하 활동가도 비슷한 경험을 소개했다. 형제복지원부터 장항수심원, 양지마을 등 탈시설 운동의 대표 사례를 훑다가, 그는 성림재단 싸움의 실패와 석암재단 재단 싸움의 성취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설조사 때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성림재단을 설립한 전 이사장의 동상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 동상 앞에 선 탈시설 활동가의 분노와 회한, 시설안과 밖 사이 벽보다 높은 감각의 차이에서 오는 막막함이 전해졌다.

두 번째 시설조사 때는 발달장애인 부모와의 감각 차이를 느꼈다. 부모회에서 출자하여 만든 그 시설은 발달장애 부모의 욕구가 정확히 반영된 곳이었다. 식단도 좋고, 위생적인 환경에, 7명 내외의 유닛 단

위로 생활지도사와 CCTV의 빈틈없는 보호 속에 외출도 자주 하는 편이었다. 문제는 위치였다. 그 안락한 시설은 산 속 깊이 유폐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일상적인 교류가 불가능했다.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과 서비스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거의 없었다.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러 노트북을 가진 생활인은 있어도, 핸드폰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가 지역사회를 활보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싫고, 혹시 모를 사건 사고도 겁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와 나머지 가족들의 평화를 깨는 것도 원치 않았다.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면회 가고 외출하는 건 좋지만, 발달장애 자녀 쪽에서 연락해 오는 건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곳은 안락한 병영 같았다.

그 정도의 자원과 부모의 욕구가 충족된 시설라면 산 속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날마다 동네 산책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극장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야학도 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도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김정하 활동가는 그럴 수 있고, 그런 시설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감각과 용기, 상상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장애인 그룹홈을 견학 했던 얘기를 했다. 3명이 함께 사는데, 한 사람 방문이 잘 안 열려 밀었더니, 방 안에 도색 잡지를 비롯한 온갖 잡지들이 어질러져 있더라는 것이다. 물론 개인별로 독립된 주거가 좋지만, 이 정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면 충분한 지원 하의 그룹홈도 탈시설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지역사회의 영구임대주택으로 탈시설을 해도, 강서구의 영구임대아파트처럼 장애인과 빈민이 단지별로

(4, 5단지) 계도화 되면, 차별과 혐오의 시선 속에서 그곳은 담장 없는 시설과 다를 바 없다. 시설은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적 배제의 장치이며, 탈시설은 지역사회로 거주지를 옮기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이 문화적으로 통합된 사회로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김원영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대다수 1차 병원급 정신병원은 분식집이나 과일가게와 나란히 도심의 한복판에, 치과나 정형외과처럼 아무렇지 않게 위치해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근처 주민들도 알지 못하며,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그 건물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들은 분식집이나 나무누크넵 햇빛을 볼 기회도 거의 없으며 기껏해야 옥상 공간을 ‘산책 시간’에 밟으며 하늘의 모양을 확인한다. 첫 번째 정신요양원 실태조사 총평 때 대학교수가 “다른 정신병원에 비하면 이곳은 살 만한 곳”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었다. 화장실 냄새가 진동하지도 않았고, 건물 내 행동반경도 넓었으며, 무엇보다 낮 시간에는 건물을 나와 땅을 밟으며 산책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저녁 식사 후에는 현관 출입문을 잠근다는 점, 4층 건물에 300명 가까이 수용되어 있다는 점, 한 방에 7명이 밀집 생활을 하며, 몇 명 되지 않는 생활지도사의 규율에 의해 완벽히 통제된 생활을 한다는 점 자체가 끔찍하게 느껴졌다. ‘나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대다수 중증장애인 시설과 비교해도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두 곳의 중증장애인 시설조사에서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요즘 대다수 장애인 시설은 수용 인원이 정신요양원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생활지도사가 그렇게 적지 않고, 감금과 통행금지 같은 규율도 없다. 「장애인복지법」의 규정 때문이다.

그런데 왜? 정신요양원은 왜 중증장애인 시설보다 훨씬 열악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걸까? 그건 정신요양원에 수용된 사람들이 「장애인복지법」의 예외 대상인 정신질환자로, 「정신보건법」(現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감금과 결박도 가능한 치료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정신요양원의 거주인과 중증장애인 시설의 거주인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정신요양원 거주인 중 버젓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이



도 꽤 있었고, 조현병 환자로 분류된 이들이 지적장애와 구별된 정신병적 증상에 시달린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그들이 복용하는 약과 중증장애인 시설의 지적장애인들이 복용하는 신경안정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의 텅 빈 눈빛과 인격, 지리멸렬한 사고와 언어가 정신질환에 의한 증상인지 중증장애인 시설의 지적장애인들과 다름없이 오랜 약물 중독과 시설병에서 비롯된 것인지, 도무지 그 차이를 알 수 없었다.

김원영 변호사는 충격적인 말로 나의 의문을 풀어주었다. 그 두 집단 간에 의학적 차이는 없으며, 정신의학과 정신병원은 그 차이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수용된 수많은 사람들과 중증장애인 거주인들 간에도 의학적 차이가 없다. 즉, 수많은 발달장애인이 정신병원, 특히 1차 병원급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신과적 증상이 전혀 없거나, 조금 있어도 입원할 정도는 아닌 경우에도 부모에 의해 강제로, 혹은 자의로 정신병원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이용하는 것이다. 정신병원 운영자가 그들을 수급자로 만들어 국가로부터 입원료를 받으면서 “그들은 나가면 갈 데 없다”고 할 때, 그들과 중증장애인 시설 운영자의 차이,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경계는 지워지고 없다. 없어도 되는 걸까? 없다면 차라리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생활 여건이나 개선하지,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규정으로 감옥 같은 환경에 방치할 건 뭐가?

김원영 변호사에 의하면, 알코올중독이나 인격장애를 가진 입원자들에게 정신병원은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족과 이웃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보호자나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의 단

골 대상이다. 게다가 정신병원은 재판 절차나 형량 같은 번거로운(?) 사법적 규정조차 면제된 채 손쉽게 무제한적 감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나가면 갈 데 없다”가 정신병원을 거주시설로 만든다면, “나가면 위험하다”는 이유가 정신병원을 감옥으로 만든다. 내가 기대했던 정신병원 고유의 기능, 즉 정신질환 양성 증상 치료를 위한 단기 입원 비중은 40%도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는 가난한 발달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이나 위험한 비행자들의 감금시설로 기능한다. 게다가 그 강제 수용시설은 복지 규정이나 사법 규정의 예외공간으로서 인간적 삶의 제 형식들이 박탈된 채 자의적 폭력 앞의 별거벗은 생명만 연명케 한다.

노들야학 학생들 중 상당수가 오랫동안 시설에서 살다가 탈시설한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이번에 만난 정신요양원의 사람들처럼 텅 빈 눈과 공허한 인격, 지리멸렬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주변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탈시설 장애인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이 “나가면 갈 곳 없다”, “나가면 위험하다”며 시설을 존속시키는 감각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공통 감각을 생성할 것이다.

고병권의 비마이너

국가는 장애화를 즉각 중단하라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반대하며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력저런 책을 써왔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몇 년간의 방랑(?)을 마치고,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조항과 판례들을 검토했는데, 나는 여기에 긴밀히 연관된 두 가지 선입견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 하나는 ‘장애’ 개념 자체에 대한 것이다. 헌법에서 장애인을 언급한 유일한 조항인 제34조 ⑥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을 ‘장애자’라고 부르는 점, 장애의 범주를 ‘신체장애’에 국한한 점은 일단 논외로 하자. 이 조항은 장애의 유발에서 사회나 국가의 책임을 (최소한의 암시 수준에서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어떤 손상을 가진 사람이 국가 정책과 사회 제도(물리적 공간의 설계부터 교육, 문화, 노동 등과 관련된 제도의 설계까지)에 의해 ‘장애화된다’(disabled)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장애 유발자로서 국가는 사라지고 보호자 내지 구원자로서의 국가만이 부각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¹⁾. 2001년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대표적이다. 이



1 이 문제는 다음 논문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김원영, 「장애인운동이 발명한 권리와 그에 대한 사법체계의 수용에 대한 연구」, 『공익과 인권』, 통권 제8호, 2010.



판례에 따르면 '장애인의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가 당장에 시정해야 하는 '자유적 기본권'과 달리] 국가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 간주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가 목표'로서 '장애인 복지'는 다른 목표 및 과제들과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최우선적 배려를 요청할 수 없다." 2007년의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도 2001년의 이 판례를 이어받았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는 "사회생활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해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요컨대 이 판례들은 다음의 도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권리는 복지의 문제이고,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데,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가 '목표'로서 추구하는 것이므로, 당장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도식.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통째로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견지에서만 보기 때문에 생겨난 판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도식

때문에 비장애인들에게는 삶의 당연한 출발점이 되는 것들이²⁾ 장애인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처럼 간주된다.

사실 '사회권'은 헌법 조문에 들어 있는 말이 아니고, 헌법적 권리에 대한 통상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헌법적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뉜다.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국가가 '침해자로서의 지위에 서는 경우'이다. 자유권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가 충분

2 이를테면 '이동권'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없었던 것은 비장애인에게는 그런 것이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인 것으로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런 기본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정도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조치"를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권리다.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국가가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규정들이다. 여기서 국가는 침해자가 아니라 보장자 내지 보호자다. 그런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보호의 정도가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건과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이상적 수준"에 대한 요구인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물리적 이동 수단과 제도로써 활동보조인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수십 년을 집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끔찍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 수준'이라는 문구 사이의 엄청난 격차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비장애인의 삶에서는 당연한 출발점이 되는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할 목표처럼 간주되는 이유이다. 내 생각에 그것은 앞서 언급한 두 선입견, 즉 장애를 사회와 무관한 개인적 손상으로 보는 시각과 장애 문제를 복지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시각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예컨대 신체의 자유 문제를 생각해보자. 자유권의 견지에서 국가는 인신을 함부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 특정 공간에 시민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필요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신 구속은 아무리 짧은 시간, 아무리 쾌적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헌법재판소 판례의 문구를 빌자면, "그 침해의 정도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다. 국가는 당장 그 침해를 멈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은 어떤가. 헌법재판소가 인신구속과 달리 이것을 사회권으로 보았다는 것은 둘을 전혀 다른 문제로 보았다는 뜻이다. 전자는 국가가 '마치 범법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후자는 국가가 '마치 모든 곳을 도울 수 없는 구호자처럼' 편의 제공을 넉넉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자. 도로를 설계하며 턱을 만들 때, 지하철 이동 통로를 설계하며 계단을 통해서만 이동하게 할 때, 국가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없도록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공간의 설계 자체가 장애인들의 인신구속 행위 아닌가. "그 침해의 정도 비록 작다 하더라도" 말이다.

실제로 이런 침해의 정도는 결코 작지 않다. 국가가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만들고 계속 유지 보수 하면서 어떤 장애인들은 영장 없이 수십 년을 집이나 시설에 갇혀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방치'가 아니라 '추방'이다³⁾.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살도록 '방치'하고 있었느냐가 아니다. 그 이전에 국가가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배제하고 추방하고 구속하는 장벽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장애' 개념에 대한 인식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장애인의 삶을 시민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침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료적 손상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문화 등에 의해 그런 손상이 '장애화'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

3 '방치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 'abandon'에는 '추방'을 뜻하는 'ban'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사실 우리는 '방치'조차 '추방'이라는 적극적 행위의 견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에 대한 통념, 장애에 대한 선입견—독일어로 ‘선입견’(Vorurteil)은 ‘재판(urteil) 이전의 재판’(판단 이전의 판단)이라는 뜻을 갖는다—속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대하며 나는 장애인의 권리가 국가가 적극 나서서 보장해야 할 사회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자유권이기도 한다고 말하고 싶다. 국가에게 장애인을 돕지 않고 뭐하느냐고 말하기 이전에 장애인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행위, 장애인을 그런 상황 속에 가두어두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는 장애의 발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는 결코 장애인 문제에 대해 국가에게 손을 떼라는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는 행동에 대한 요구이다. 국가는 멈추는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사람들을 장애화하는 일들을 멈추는 행동을 해야 한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 온 장벽

들을 즉각 허물어야 하며(현행적 침해의 즉각적 시정), 장애를 발생시킬 장벽들을 예방해야 한다(예견된 침해의 중단). 이는 “그 침해의 정도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다른 자유권 침해의 경우처럼 즉각 시정되어야 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즉각적 시정 조치 중 상당수가 헌법재판소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처럼 제시한 사회권 조항들에 들어 있다. 장애인에게 사회권 보장은 자유권의 보장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신체의 자유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 거주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생활을 가질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까지, 모든 자유권들이 다 그렇다. 그러므로 국가는 지금 당장, 이 모든 자유권들의 침해를 중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시설 밖에서 보낸 나의 2년 6개월

김진석

노들아학 학생 겸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30년 가까이 생활을 하다 지역사회 나와서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한 지 2년 6개월이 되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어렸을 땐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하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벌써 내 나이가 51살이나 먹었다. 지난 50년 세월동안 나는 무얼 하며 살아왔다. 장애인 시설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다. 그래서 2015년 3월 2일에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하였다.

더 이상 시설 안에서 나의 삶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지역사회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나왔다. 그리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자립생활주택에서의 나의 생활은 참으로 바쁘고 재미있고 신나고 즐거웠다. 시설 안에서는 별로 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시설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면서 가보지 못한 곳도 여행을 통해서 가보았다. 대표적으로 남이섬이라는 데를 시설 밖으로 나와 처음으로 가보니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벚바리’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설 밖으로 나와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으나
장애를
갖고 있는 내가
끝까지 자립생활을
잘해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었다. 벤틀리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이음여행'을 통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멘토-멘티의 관계로 남이섬에 가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했었던 것도 좋았다.

시설에서 생활할 때에는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시설 밖에 나와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외출하는 데 아무런 간섭도 안 받아서 좋았고 눈치도 안 받아서 좋았다. 시설 밖에 나와서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내 마음대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전철을 타고 다닐 수가 있어서 좋았다.

지난 50년 동안 나의 인생,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버스를 혼자 타본 기억이 없다. 부모님이나 형, 누나가 나를 업고 버스나 기차를 탄 기억밖에 없다. 그런데 시설 밖으로 나와서 내 스스로 저상버스를 타보고 기차 타고 부산에 여행을 가보기도 했고 너무 좋았다. 시설에 있을 때에는 기차라는 거 타볼 기회도 없었는데 시설 밖에 나와서 기차 타고 여행도 가고 지하철, 저상버스 자유롭게 탈수가 있어서 좋았다.

그렇지만 아직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너무 부족하다. 명절 때마다 고속터미널에서 사람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저상버스가 없어서 고속버스를 탈 수가 없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서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시위 집회를 한다. 이런 집회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목표로 하는 것이다.

어쨌든 내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서 자립생활주택에서 2년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지하철, 전철, 저상버스, 기차를 자유롭게 타보기도 했고 집회 현장에 참여하기도 했다. 가장 기억이 나는 집회는

대구 희망원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이다.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센터 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면서 센터 활동가들이랑 얘기도 해가면서 휴게소에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으면서 차 안에서 경치도 구경하는 것이 좋았다. 대구 희망원 사태 집회에서는 시설에서의 삶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잠시 생각해보다가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주택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은 잘 안 나지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시설에서는 해보지도 못한 것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즐거우게 생활을 하였다. 그렇지만 시설 밖에 나와 자립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립생활 운동하는 활동가들의 갑작스런 죽음 소식을 들을 때면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졌다.

특히 함께 센터에서 프로그램도 같이 했고 벤틀리 자조모임도 함께하면서 친해지려고 하던 이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에 허전함과 우울함을 느끼었다. 그는 바로 꽃동네에서 탈시설해서 자립생활을 했던 박현이었다. 그리고 같은 장애인시설 안에서 30년 가까이 생활을 함께하면서 탈시설해서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을 했던 정양균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에 한참 동안 어안이 병병하고 믿기지가 않았다. 시설에서 나와 이제 막 자립생활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고 정양균 친구도 꿈과 목표를 안고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죽으니 한동안 나의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졌다. 그리고 노들야

학 불수레반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김호식이라는 사람이 있다. 비록 김호식 노들야학 학생하고는 친분이 없기는 하였지만 함께 불수레반에서 수업을 듣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광진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했던 김종희 팀장의 갑작스런 죽음의 소식에 믿기지가 않았다. 목 디스크 수술을 해서 건강한 모습도 보였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도 함께 보고 점심도 함께 먹고 여행도 함께했던 김종희 팀장이다. 갑작스런 죽음의 소식에 더 이상 교회에 가도 김종희님을 볼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니 나의 마음이 허전함과 우울함을 느낀다.

아무튼 내가 2년 6개월 동안의 자립생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다.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으나 장애를 갖고 있는 내가 끝까지 자립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나의 잣대와 기준은 뭐였을까

활동보조 하면서 느낀 글

≡ 사용자 김장기

≡ 활동보조인 이상석



활동보조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처음 장기 씨와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다. 장기 씨는 원래 사려고 했던 것 말고 다른 이것저것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사려고 했다. 그런 장기 씨를 설득하면서 제지를 하자 열른 수궁하고 과소비와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그것 때문에 장기 씨 마음에 조금씩 불만과 화가 쌓여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 전부터일지도 모르지만) 활보를 한 지 3주째 정도 되었을까? 센터로 가던 도중 가전제품을 파는 가게에 들러서 소형라디오를 사겠다는 장기 씨(이미 집에 같은 걸로 3개가 있었다. 새 거로)를 못 사게 말리고 달래고 있었다. 그랬더니 장기 씨가 짜증이 났는지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게 혀”하면서 허공에 대고 막 욕까지 해댔다. 그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다. 그 이후에도 길을 가다가 사고 싶거나 호기심이 생긴 것을 보면 들어가서 꼭 사고 만다. 내가 못 사게 하거나 그냥 가버리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하고 무조건 “아니 이거” 또 “아니 이거”하면서 고집을 부린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다. 그 날 도 장기 씨와 물건을 못 사게 하는 신경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피하거나 불편해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위축되고
주눅 들어서
더 밖으로 안 나오고
안에만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나도 참다 참다 못해 화가 나서 장기 씨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공중에 욕두문자를 날려버렸다. (사실 때리고 싶은 마음까지... ^^;;) 센터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역에서 장기 씨에게 교통카드를 꺼내 달라 했을 때 카드가 없어졌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기에 “그럼 같이 찾아봐요” 했다. 그랬더니 없다고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지갑과 가방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그래도 “한 번만 보여줘 봐요. 잘 찾아보게”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마침 같은 주택에 사는 인성 씨가 지하철을 타러 오셔서 같이 지하철을 타고 주택으로 돌아왔다. 이상하고 찜찜한 마음과 진짜 잊어버렸거나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코디님에게 말씀드려야 하니 장기 씨가 화장실에 갔을 때 훔치나 하면서 지갑을 뒤져 보았다. 역시나 지갑 속에 교통카드가 있었다. 나는 그게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장기 씨가 오자마자 따져 물었더니 “물건도 못 사는 그게 무슨 카드야! 에이씨”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짜증을 냈다. 화가 난 나는 그 길로 코디님께 전화해서 “더 이상 장기 씨 못하겠어요. 그만 둘 거니까 다른 사람 알아봐주세요.” 라고 했던 게 벌써 지금까지 와버렸다.

활동보조를 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

활보를 하기 전엔 신기할 만큼 장애인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강남이나 평창동같이 부자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서민 중에 서민인 내가 사는 동네라면 주변에 많이 있을 법한데 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 했던가? 이 일을 하다 보니 조금은 장애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니깐 동네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또 신기했던 건 생각보다 장애인 숫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일까? 그것 또한 관심을 가지고 보니 보였던 것인데, 많이 개선 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동휠체어가 갈 수 없는 건물이나 시설들이 많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 보면 피하거나 불편해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위축되고 주눅 들어서 더 밖으로 안 나오고 안에만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나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진 사실 그랬던 사람 중 하나였다. 특히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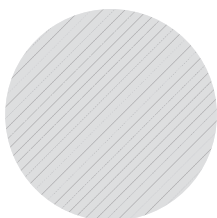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
거기서 만족하기보단
하나를 더 가져
두 개를 가지고 싶어 하고
또 세 개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게 사람일진대
장애인들이라고 다를까?

가 복지예산을 늘릴 때마다 싫었다. 물론 복지예산이 전부 장애인만을 위해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까지 내가 해왔던 생각은, 일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는 장애인들은 가만히 놓고먹으면서 돈까지 받고 나는 헬조선에서 죽어라 일해서 세금 내고 혜택도 내는 것만큼 못 받으면서 쥐꼬리만 한 월급에 미래와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게 너무 알립고 싫었다. 하지만 그건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밖에서만 봤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였다.

그들도 사람이기에 비장애인들처럼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이 있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비장애인들은 마음껏 누릴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는 누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정말 최소한의 것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누린다.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 거기서 만족하기보단 하나를 더 가져 두 개를 가지고 싶어 하고 또 세 개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게 사람일진대 장애인들이라고 다를까? 병이나 사고로 후천적이 되었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이 되었던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더 이해해야지 하면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내가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내 속에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정심이 더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잣대와 기준들은 뭐지? 그건 정말 객관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요즘 조금씩 해본다.

사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이 일을 더 할지 모른다. 확실한 건 아직은 젊기에 다른 일에 곧 도전하려고 준비 중이며 계획 중이라는 것이다. 준비가 되면 떠날 거다. 하지만 떠나서도 그 전과 같이 아예 관심 없이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게 돕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돕고 싶다.



24번째 노들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람(8)과 사람(8)이
만나는 날

김진수

노들야학 상근교사 진수입니다.
저는 산책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거기엔 산도 있고 책도 있더군요.
걷기 좋은 가을입니다. 함께 걸어요.



8월 8일은 노들야학 생일입니다.
8월 8일이라는 날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8)과 사람(8)이 만나는 모습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인지 8월 8일 노들 생일엔 마로니에공원에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올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날, 노들야학 24번째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 생일은 '노란들판에서 함께 찍고, 보고, 먹자!' 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다 같이 모여 사진 찍기 대회를 했습니다.
 저마다의 표정과 몸짓으로 예쁘고 멋진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는 모습들,
 함께 모여 찍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사진 찍기 중간에는 아프리카 댄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마로니에에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나게 하늘을 날 것 같은 댄스를 춥니다. 케익을 먹으며 단체 사진을 찍고
 첫 번째 순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노들에서 보자'라는 주제로 노들야학 4층에서 진행됐습니다.
 고 박종필 감독을 다 같이 추모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권 보고서-버스를 타자>를 함께 봤습니다.
 영상에선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이어지는 교장선생님의
 박종필 감독에 대한 발언. 노들 생일날 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추억하는 시간은 생일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노들에서 먹자'입니다. 다 같이 모여 노들 들다방에서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물론 막걸리도 한잔했지요. 다 같이 모여 먹는 밥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생일에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후부터 이어지는 노들의 생일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왁자지껄 질펀한 생일날입니다.
 어쩌면 모든 생일의 시작은 만남 마주침입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마주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노들의 생일(8월8일)은 우리 모두의 생일, 생일의 생일 같다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내년 2018년 8월 8일에도 한 번 더 만나고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들과 우리 모두에게!

노들아 안녕

트로트를 좋아하고 잘 불러요

김장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장기예요.
저는 전라북도 완주에서 태어났고 완주에서 살다가 2007년부터 송전원에서 살았어요. 2016년 10월부터는 송전원이 폐쇄되면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해서 자립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어요. 주택에서는 하상이(하상윤) 인성이(이인성)이 그리고 활동보조사 선생님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닭도리탕을 좋아하고, 삼겹살, 순대, 그리고 믹스커피를 좋아해요.

아 그리고 저는요. 트로트를 좋아하고요. 또 엄청 잘 불러요. 하하하하 사랑은 나비인가봐 ~ 야학에서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노들아 안녕

나는 임종운입니다

임종운

나는 임종운입니다. 나이는 50세입니다. 누림홈에서 나와 지금은 마장동 삼성아파트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들야학을 알게 되어서 2017년 2월



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솔반에서 열심히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도 잘 듣고 열심히 배우니 선생님들도 자주 칭찬해줍니다.

노들아 안녕

자립생활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방재환

안녕하세요. 저는 방재환입니다. 12월 21일 생일이구요, 24살입니다.

열 살까지 광주에서 살았어요. 열한 살에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주몽학교에 가서 고등교육과정까지 마치고 주몽재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립하여 살고 싶어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도봉 노적성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알게 되어 주몽재활원에서 나와 2016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신동아아파트의 자립생활주택 가형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은 노적성해 센터의 소장님과 국장님, 팀장님, 간사님의 지도와 활동보조 선생님의 서비스 제공으로 불편함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활원에서 처음 나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겁도 많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 계좌이체, 현금인출도 할 수 있고 저상버스, 지하철도 잘 이용합니다. 장애인콜택시도 불러서 가고 싶은 곳도 아무 불편함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품도 사 오곤 합니다.

노적성해 센터 간사님의 안내로 노들야학을 알게 되었고, 지금 노들야학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노들야학 선생님 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잘 가르쳐 주셔서 좋아요. 특히 김진수 선생님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간은 음악시간과 미술시간입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들야학에 다닐 생각입니다.

제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꼭 자립생활에 성공하여 보답해 드리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노들아 안녕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에 마음을 다하고 싶어요



최은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노란들판 디자이너로 입사한 최은화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려니 매우 쑥스럽네요. 하하.

노란들판에 입사한 지 이제 갓 한 달이 넘었어요. 아직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일이 낯설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챙겨 주시는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가며 지내고 있어요.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팀장님께서 제게 지어주신 별명이 '나노 변화'였는데요. 말수가 적고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에 낯을 가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누군가와 친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대신 가까운 사람과는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는 편이고 또 친한 사이에서는 엉뚱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장난도 잘 치고 이야기도 잘 나누는 편이기도 해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는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들을 정도로 듣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멍 때리거나 하염없이 걷는 것을 좋아해서 조용한 곳으로 여행가는 것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잠자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노란들판 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했을 때 사실 이곳에서 일하기 위한 특별한 목표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곳인지 내가 이곳에서 디자이너로서든 아니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고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 하나만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선 서로 경쟁하며 날을 세우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며 함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품고 노란들판의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지적장애를 가진 이제는 가족과 떨어져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노들에서 외치는 장애인시설 완전 폐지라는 구호를 볼 때 그리고 장애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해요. 이런저런 고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지만 너무 많은 생각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부딪히며 경험해 보고 싶어요.

수많은 시간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받는지 꽃들이 어둠을 어떻게 익히는지 외면한 채 한 곳을 바라보며 고작 버스나 기다렸다는 기억에 목이 뭉 것이다.
- 조은 <언젠가는>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구인데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놓아버리는 지금을 살기 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하루하루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지금의 시간들이 쌓여서 제가 좀 더 선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고 진심을 다했던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고 싶은 바람이 있기도 해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좀 더 노력해서 노란들판에서의 일과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고 싶어요. 거북이의 속도로 익숙해지더라도 앞으로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노란들판에서 여름을 지내는 법

'내게 사랑을 물을 때.....'

장선정

노란들판의 사무팀장을 맡고 있지만
실은 잡무에 더 소질 있음
94년도부터 5년간 야학 교사를 했으며
역대 가장 어수룩한 교사대표를 지냈음
23년째 노들의 언저리에 머물고 있으며
책과 자전거를 좋아하는
40대 수영꿈나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몸과 말이 있고, 현물과 현금이 흔히 쓰이며 경우에 따라 몇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노란들판의 구성원들도 각자가 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랑을 표현한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강도 높은 노동을 소화하기도 하고,

하고 싶을 말을 덮고 행동을 먼저 하기도 하며, 하기 싫은 말을 굳이 크게 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인사노무팀장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일을 벌이는 형태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현재 노란들판의 독특한 복리후생이나 특별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그에게서 태어나 성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해보니 그는, 7, 8월 비수기를 의미 있게 만들 내부교육 프로그램을 고민 중이었는데 '교육'자만 들어도 어쩐지 경직되는 우리는 갑자기 눈도 흐리고 귀도 안 들린다는 듯 애매한 표정으로 계속 탄청을 피웠다.

반쯤 강제로 디자인팀의 막내가 일러스트레이터 심화교육을 하기로 하고, 사무팀의 막내가 역시 짬밥에 밀려 회계(경제)교육을 하기로 정해 진 후로 추가지원자가 없자 교육일정은 멈춤 상태가 되었다. 계속해서 회의록에 2줄 이상이 찍히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던 어



느 날, 얼른 한 줄을 더 추가해서 이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만, 머리를 통과하지 않은 말이 훅 튀어 나오고 말았는데, 그건 "여름 맞이 요리교실이라도 할까요?"였다.

'요리교실'이라니.....그것도 디자인교육과 회계교육 중간에..... 노란들판에 부루스타 2개 있는데.....20인분은 해야 하는데.....

생각해 보면 노들야학도 노란들판도 처음엔 그다지 말이 되지 않았다. 90년대 초반의 야학은 학기 초가 되면 교사들이 돈을 건어 교과서와 문제집을 구입했고 공부가 어렵다고 결석하는 학생들을 체포(?)하러 다녔으며 교사들이 지켜야 하는 강령이 그토록 서슬 푸를 수가 없었는데도 거의 지켜졌다.

10여 년 전, 노란들판의 처음도 비슷했던 것이, 출력기 구입비와 사무실 보증금, 현직교사 1인, 퇴임교사 1인(장선정), 야학학생 2명이 군자동의 어느 건물 텅 빈 4층에서 '우리가 앞으로 현수막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장비사용법을 고민했었다.

나는 나름 뜨거웠던 시절에 뜨거운 사람들 곁에 있었으나, 사회과학의 단호한 언어에 적응하지 못 하고 논리 또한 익히지 못하면서 명민한 행동주의자인 선배들에게 흐릿한 후배로 믿음을 주지 못 했고, 말로는 민간인으로 살려나 하면서도 무언가 불편함을 버리지 못하고 언저리에 머물며 20년을 지내왔다.

노란들판에는, 누가 봐도 무리다 싶은 일을 기여이 해 내는 이가 있고 차마 도와달란 말을 하지 못 하고 홀로 새벽을 밝히는 자가 있으며, 더 낮

석관동 장금이의 이상한 요리교실

2017 약력
Korea 2017 Pro Cook Seokgwan Festival 최우수요리 선정
2017 Summer Potbingsu Make Contest Idea Part 우수작 선정
2017 Lunch Gimchizzigae Fast Make 기동인 선정

고 좋은 것들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건네려고 몸과 마음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 여긴다. 내가 가진 몸과 머리는 대개 모자라거나 한 박자 늦는 편이어서 나는, 고된 일을 해 내는 동료들의 언저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느라고 하릴없이 분주하다.

그래서, 20인분의 음식은 만들어졌다. 거하게 장을 보고, 튀가 나올지 궁금해 하는 동료들의 손을 빌어 이런저런 메뉴를 만들어 나눠 먹고는 하절기 내부교육의 2회차를 채웠다.

누군가 내게 사랑을 묻는다면 늦지 않게 출근하려 애쓰고, 급하고 어려운 일을 먼저 하려 서두르고, 누가 알거나 모르거나 스스로의 몫을 고민하며 오늘의 낮과 밤을 보내는 곁에 있는 이들의 존재를 그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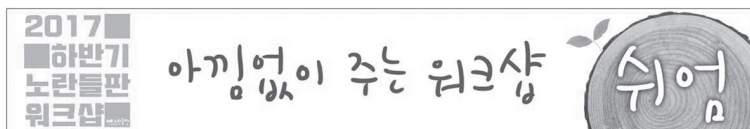
그것이 사소한 나에게 좌절하지 않고, 수 없는 다름에 놀라지 않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모든 미미한 것들과 함께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워크숍 "쉬엄"

2017 하반기 노란들판 워크숍

조상필

드립니다. 잠이 많고요. 스스로 허당상필이라는 별명을 쓰지만 잘 불려지지는 않아요. 노란들판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오래 함께 일하고 싶네요~



최근 시간이 다가오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급주문!!! 대량주문!!!

빛의 속도로 쳐내지만 쌓여가는 주문서!!! 빗발치는 수정요청!!!

앉을 새도 없이 작업대를 돌고 돌아, 출력기도 끊임없이 돌고 돌아!!!

그렇다면 노란들판 모두 "쉬엄!!!"

바쁜 일상에 잠시 멈춤을 돌려주고 노란들판 사람들은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그야말로 온전히 쉬를 위한 시간이 8월 25일, 26일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25 : 그늘과 열매를 내어줄게 첫째날 : 놀러와

우리는 아침 일찍 석관동에 모여 두 대의 봉고차에 먹거리와 놀거리를 가득 싣고, 너도 싣고 나도 싣고 양평으로 떠났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도착한 계곡 근처 식당의 풍경은 석관동에 두고 온 일거리를 슬그머니 잊어버리기에 충분했고, 와랑와랑 물소리를 들으며 주인집 강아지들과 함께 '세상 맛있는 점심시간'을 가졌지요.

이틀 머무를 숙소인 "소리산 황토밸리"는 부른 배가 채 꺼지기도 전에 도착할 만큼이나 가까웠고, 우리들의 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네요. 계곡물에 발을 시원하게, 해먹에서 졸음과 나긋이, 무리지어 게임을 시끌벅적, 오후라~ 황토찜질방아 여름이라고 너를 피할 소녀!

여름의 해는 길지만 우리 배꼽시계는 어김없이 저녁시간을 알아차렸군요. 숯불 위에 싱싱하고 푸짐한 먹거리가 올라가고~ 평소보다 많이 먹어도 우리는 서로서로 눈 감아 주었지요.

이번 워크숍에서는 회의는 하지 않아~. 다만 진지한 이야기는 잠깐 하자. 노란들판이 풍량을 헤쳐 나가는 배와 같다면? 저 들판에 솟아 크는 나무와 같다면? 장독대에서 장이 익어가는 과정이라면? 사뭇 진지한 논의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도 꺼내어 나누어 보았어요.

그러다보니 그 시간이 찾아왔어요. 물론 내일은 분명히 오겠지만, 다만 오늘은 모른 척 하기로 약속한 바로 그 시간이지요. 너무 웃고 떠들어 다른 숙소 사람들이 팔 걷어붙이고 찾아올까 망을 보아야하나 생각도 했네요.

노란들판은 상반기동안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의기투합하기 위해 팀별 목표와 개인 목표를 내걸어 두었었죠. 목표를 위해 부지런했던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양평에서의 밤은 더욱 깊어 무르익어 갔어요. 노란들판의 목표 달성제는 이 이야기의 끝에 다시 이어가려해요.

26 : 즐기와 밑동을 내어줄게 둘째날 : 편히 쉬엄

출근걱정, 지각걱정도 없을 텐데 눈은 왜 이 시간에 떠지는지 야속하지만, 일찍 눈뜬 사람들의 산책도 이불속 사람들의 뒤척임도 마음 편한 "쉬엄"이었네요.

느긋하게 숙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어제와 오늘의 기억을 "찰칵" 사진기에 담은 뒤 아직 끝나지 않은 쉬를 찾아 출발하였어요.

이런... 점심식사 자리로 점찍어둔 "문호리 리버마

켓"이 마침 쉬고 있지만, 이런 것도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덕분에 테라로사라는 분위기 있는 카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카페를 구경하고 우리는 조금 옆에 있는 백미당에서 차와 빵을 함께 했어요.

이틀간의 "쉬엄"이 정말로 끝났네요. 쉬이 이렇게 소중한 만큼 바쁜 일상도 소중한 알기에 우리는 또 다른 쉬를 기약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2017 상반기
노란들판
2017 : 목표 달성제

바쁘고 정신없지만 나를 지탱해주는 일상이 있기에 삶의 가치가 더욱 의미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노란들판의 일상들 중에 목표 달성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표 달성제는 2017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취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서로 지지하고 의기투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개체를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성격 결과의 성과보다 과정과 노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경쟁적이거나 강제적인 상황을 지양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즐겁게 참여하고 평가한다.

방법 상반기 동안 팀별 또는 개인이 달성하고 싶은 업무적 혹은 사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개인의 노력과 서로를 지지하는 구성원들의 지원·협력을 통해 목표 달성을 추구한다.

팀별 목표 업무노하우를 공유한다. 신입 직원의 디자인 실력을 키운다. 미수금률을 낮춘다. 장기휴직자의 빈자리를 잘 버텨낸다.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등등 (실제 상반기 팀별 목표 중 몇 가지)

개인별 목표 우쿨렐레 배우기, 발레 배우기, 공모전 입상, 체중감량, 점핑, 피아노 배우기, 작업팀인데 디자인 잘하기, 야근 줄이기, 소모, 자리정리, 강좌 수료 등등 (실제 상반기 개인목표 중 몇 가지)

평가 방법 팀별 목표는 평가단 구성. 개인별 목표는 개인이 발표. 워크숍을 통해 투표-개인당 3표씩 가지고 마음에 드는 팀 또는 개인에게 투표.

보상 상금 또는 상품을 준비하여 워크숍을 통해 전달. 최소 보상 적용 노력.

올해 처음 도입되었던 2017 상반기 목표 달성제는 소소한 즐거움부터 의미 있는 성과까지 많은 것을 얻었던 경험의 과정이었습니다. 내부 평가를 통해 몇 가지 조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제안되었으며, 앞으로 다듬고 보완하면서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제도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노란들판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옆 사람들을 더 챙겨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란들판으로 놀러오세요~ 앞으로의 노란들판의 일상도 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쉬엄~!!!



노들야학 낮수업을 소개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수업 소개

...

야학 수업은 오후 5시에 시작하는데 오전부터 야학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종일 야학 복도와 사무실을 서성이던 학생들을 위해 야학은 3년 전 '낮수업'반을 개설했습니다. 이 낮수업은 발달장애인 학생분들을 위한 수업이었고, "천천히, 즐겁게, 함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수업 교과나 목표는 매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첫 해에는 저녁수업의 보충 수업 느낌이 나는 활동들이 많았는데, 2년차 3년차로 넘어가면서 좀 더 다양한 활동형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중반부터는 장애인거주시설인 인강원의 생활인들이 낮수업 학생으로 합류하면서 낮수업의 모습은 또 크게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천천히, 즐겁게, 함께" 가려고 오늘도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낮 1시반부터 4시반까지 진행되는 낮수업, 각각의 수업을 소개합니다.



(?)
박임당 야학교사

월요일 수업을 뭐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까요? 사전에 계획된 것은, 그리고 봄학기 동안 우리 수업은 '직업체험'이 주제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자료집도 같이 보고, 우리 주변의 직업들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했지요. 발달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수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발

달장애인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직업들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직업과 직업세계에 대해 다루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여름방학 회의 때는 하반기 수업으로, 직업으로서의 예술가, 노동조합, 산업재해 등의 나름 신선한 주제들을 잡아냈었는데.... 이 계획은 한 순간에 엮어집니다....!

바로 인강원이라는 시설에 거주하시는 발달 장애인들이 대거 수업에 결합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에너지가 넘치고 개성 강한 학생들이 9명이나 새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학생들과 교사들과의 관계 맺기를 위해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신지 인터뷰도 해보고, 야학 공간과 친해지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기도 하고, 야외로 나가서 낯선 공간들과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저것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실행해 보고 또 깨졌다가 반성하고 다시 계획을 짜고 하면서 2개월가량을 보냈습니다.

앞으로의 수업에서는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춘 준비들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바로 어제 했던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계시니 자립생활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고르고 오려 붙이는 수업을 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지역사회를 돌

아보는 외출도 좀 더 많이 하고, 지금은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연습도 다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준비했던 것들이 다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학생들과의 관계는 좀 알 것 같다가도 새로운 모습들이 훤히 튀어나오곤 합니다. 매번 수업의 주제와 틀을 잡기 위해 교사들이 모여 따로 회의를 하지만, 혹여 어떤 사고라도 날지 조마조마 하게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굴러가는 우리의 수업을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로 남겨두고,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아겠습니다.



아프리카 댄스 수업

고권금 콜레칸



젬베플라 신보섭 젬베의 에너지! 아프리카 댄스와 함께 노란들판에서 뛰어놀아요!

댄서 Emmanuel Sanou(엠마누엘 사누) Sharing energy and express ourselves.(우리는 춤을 통해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댄서 박용일 아프리카 댄스 수업은 서로의 마음을 더 크게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댄서 고권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 우리 함께해요!

어느덧 익숙해진 노들로 향하는 길. 뜨거운 햇살이 이마를 뚫고 온 몸을 뜨겁게 달구는 날이었다. 더위를 뚫고 도착한 교실은 웬 일인지 눈물바다였다. 이유는 다 제각각이었다. 뒤통을 벗으려다 선생님한테 혼나서, 넘어져서, 그냥 슬퍼져서, 며칠 전 본 드라마에서 명성황후가 죽었는데 그 장면이 떠올라서... 그렇게 울음은 한 명에서 다른 한 명으로 전

염되기 시작했고, 나는 과연 춤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우리의 젬베플라, 보섭이 눈물에 젖을 뻔한 흥을 깨우는 젬베연주를 시작했다. 그러자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자연스럽게 스텝을 밟으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직선으로 똑똑 떨어지던 눈물은 올라간 입꼬리 옆으로 둥글게 흐르기 시작했고, 엠마와 용일 그리고 나는 갑자기 퍼진 행복바이러스에 박장대소하며 함께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그렇게 순식간에 퍼진 행복 바이러스에 우리는 신나게 땀 흘리며 춤쳤다.

감정의 교류, 에너지 발산과 표현, 춤과 음악을 통한 몸의 대화는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간다. 내가 나이고, 네가 너인 상태에서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의 존재함을 끊임없이 표현한다.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이 슬픈 사회를 향한 저항방식의 일환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행복의 흥을 다 함께 터트리는 날을 상상해본다.





핸드드립 커피 수업

수요일 유선 카페별골

커피를 내리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카페에서는 커다란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커피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 수업에서는 전기나 기계를 쓰지 않고 가능한 한 간단한 방식으로 커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거칠게 간 커피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붓는 방식의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를 매 시간 연습하고 있어요. 뜨거운 물과 커피, 주둥이가 가는 핸드드립 전용 주전자와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외부에서도 쉽게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학기 정도 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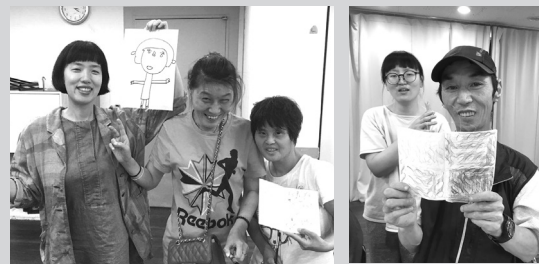
연습하면 누구든지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돼요!



진zine 수업

목요일 유선 카페별골

진은 혼자서(아니면 작은 그룹이) 기획, 집필, 편집, 제본, 유통의 모든 과정을 하는 출판물을 말합니다. 보통 1~100부 정도로 만드는데요(원한다면 아주 많이 만들 수도 있고요), 진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싼 값에 판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 수업에서는 자기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이든 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글씨를 쓰는 사람도 있고, 연애편지를 진으로 만



들어서 상대방에서 주는 사람도 있어요. 매 시간 만든 진은 완성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 권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전시를 하기도 해요.



옥상텃밭 수업 _ 맛과 멋이 있는 싱싱텃밭을 소개합니다

금요일 이영희 복지원예사

매주 금요일은 노들야학의 싱싱텃밭 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싱싱텃밭은 종로구청에서 주관하고 한국원예치료협회의 복지원예사가 강사로 파견되어 텃밭활동과 연계한 맞춤형 원예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상추를 비롯한 다양한 쌈채소와 고추, 가지, 토마토 호박 등과 같은 열매채소를 심었고 향기 가득한 허브들도 심었지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텃밭 작물들을 수확하여 허브음료를 만들고 호박전도 만들어 팝파티를 열고 많은 사람들과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싱싱텃밭 활동은 텃밭에서만만이 아니라 실내에서도 텃밭의 수확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요리의 재료로 사용함은 물론 텃밭 채소들에게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와 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 식물보호제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채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려주기도 합니다. 싱싱텃밭은 텃밭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텃밭채소 재배와 원예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즐겁고 건강한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인 지금 옥상에 있는 텃밭에는 배추, 무, 갓, 시금치, 쪽파 등과 같은 김장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노들야학의 학생들이 직접 심고 사랑을 듬뿍 주며 가꾸고 있는 텃밭채소들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잘 자란 배추와 무 등을 수확하여 맛있는 김장김치를 담글 계획입니다. 노들야학의 텃밭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김장채소들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노들야학의 싱싱텃밭으로 놀러오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애가 있다해도 저는 장애인도. 뭐든지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보조 선생님이 계시기에

저는 어디든 활동보조 선생님이랑 뭐든지 할수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 선생님이랑함께 자유로운 활동을 같이

갈꺼예요

여러분도 체선을다해 열심히 살꺼지요?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남옥이 좋아하는 색깔은 녹색이다.

난 남옥의 지금 소개가 예전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물론, 꼭 본인을 매력적으로 소개할 필요는 없다. 김남옥이라는 사람이 더 느껴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아무것도 못하는'이라는 소개 뒤에 숨어있던 유쾌하고, 장난스럽고, 주변을 밝은 기운으로 복돋아 주는 사람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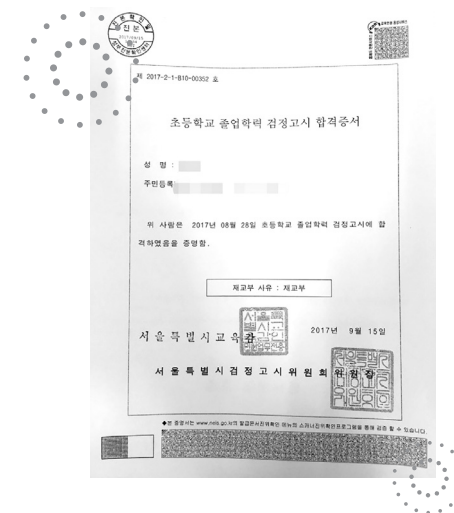
[거북아 가지] 라는 동아리 이름은 부원들이 지었다. 거북이처럼 느려도 우리의 속도로 즐겁게 같이 가자는 의미다. 나와 내 주변을 소개해 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래도 조금씩, 느리게, 우리는, 가고 있다.

배움의 한을 풀고 싶다. 진짜!!

야학 학생들의 검정고시 이야기

김진수

노들야학 상근교사 진수입니다.
저는 산책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거기엔 산도 있고 책도 있더군요.
걷기 좋은 가을입니다.
함께 걸어요.



2017년 8월 노들야학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예전에 비해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배움에 대한 욕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가 있고 난 후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합격한 학생도 있고 불합격 한 학생도 있었는데요.(합격한 학생 한 분은 100점을 맞은 과목도 있었답니다!!) 합격한 학생에겐 축하를 불합격한 학생에겐 위로를 보내지만, 한 학생의 “떨어져도 붙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볼 거야”라는 말처럼 떨어져도 붙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보면 될 테고. 또 다른 학생의 “배움의 한을 풀고 싶다. 진짜!!”라는 말처럼 우리는 한을 풀 때까지 계속 장애인의 교육에 대해, 삶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야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한을 푸는 그 날까지 공부도 투쟁도 계속 합니다.

학생들의 한 서린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세요! 내년에도 계속, 계속, 계속입니다!



◆◆◆ 검정고시 소감

◆◆◆ 검정고시 시험은 쉬었다. 28점 받은 게 어디냐. 그것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거다.

여섯 과목을 봐서 힘들다. 쉬는 시간이 너무 짧다. 나중에 시험을 또 볼 거다, 합격할 때까지 볼 거다. 더 공부해서 1등 만들 거다. 검정고시 시험 보고 대학 가겠다.

■ ■ ■ 검정고시 보면서 이번에 합격하길 바랐는데, 합격을 하면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합격을 못 해서 좀 아쉬웠다. 내년에는 검정고시 잘 준비해서 꼭 합격을 하고 싶다.

배움의 한을 풀고 싶다. 진짜!

♠ ♠ 안녕하세요. 저는 청솔2반 안홍경입니다. 작년 가을정도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은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야학에 적응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샘 권유로 초등검정고시를 지원했지만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학교 오기 전 간신히 활동보조 샘에게 구구단 정도만 외워서 왔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저는 여름방학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욕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합격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58세 나이에 처음 학교라는 곳에 갔는데, 초등검정고시를 합격했다는 소식은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학교 다니면서 졸업장을 받았지만, 나는 50년

동안 집에서만 있어서 학교라고는 입구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서 검정고시를 본다는 게 너무 벅차고 기쁜 일이었고, 검정고시 지원을 했을 때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더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합격 기쁨은 무어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저에게 주는 큰 상 같았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중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 학교 졸업장을 꼭 따고 싶다.



'성(性), 마이웨이'

탈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 박은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우연히 맺은 인연으로 파란만장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립주택 코디로서 활동한 지 어느덧 11개월이 되어갑니다. 곧 일 년이 되지요. ^^ 자립주택 입주자들과 아옹다옹하며 지낸 시간들은 나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었지만 예기치 못한 도전과 고민들도 안겨주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성(性)에 관한 것이었지요. ^^ 자립주택 언니(?)들과 연애와 결혼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절실함 속에서 주변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탈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성(性),마이웨이'를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자연스럽다는 말은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생각입니다.) 성(性)에 관한 호기심과 욕구를 해결해 가지만 장애인들이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씬을 타게 되면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방법이나 데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파트너에게 지켜야 할 예절에도 서툰다. 또한 소위 본능이라는 부분에 충실하다 보니 성에 대한 잘못된 표출이 오해를 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탈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성(性),마이웨이'에서는 10회에 걸쳐 성(性)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내용을 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성(性)에 대한 팩트를 조금도 주저함 없이, 강의를 듣는 나도 당황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성교육에 참석한 발달장애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건 물론이구요. ^^

'남녀 신체의 차이점', '아기가 생기는 과정과 출산', '피임을 해야 하는 이유와 피임 방법', '콘돔 사용 방법', '데이트 방법과 데이트를 할 때 지켜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잘못 인지된
성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려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예절', '성폭행 예방법과 대처법' 등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알고 있어야하는 이론을 알려주고 실습(?)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회, 한 회 수업을 진행하면서 점차 알게 된 사실은 교육에 참여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생각보다 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중에는 교육 강사의 의도대로 대답한 경우도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활발한 의견 교환과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통해서(교육에 참석한 발달장애인들이 강사의 질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답해주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역시 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잘못 인지된 성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려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탈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성(性),마이웨이'에서는 성에 대한 이론과 실습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가한 발달장애인들에게 '감정의 표현 방법과 상대방의 감정 이해하기', '사적인 장소와 시간의 중요성'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파트너에게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말하기', '성폭력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가 성폭행인지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을 겪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정해 놓을 것'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천할 사항에 대해 약속을 받고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역할도 무척
중요합니다.

앞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막 연애를 시작한 혈기왕성(?)한 자립주택 발달장애인 입주자를 타깃(?)으로 한 - 본의 아니게 판이 커버렸지만 -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한 나의 마음 밑바탕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내재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거듭하면서 교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과 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그리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본인들의 성적 주체권을 갖기 위한 길을 이미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단 본인들의 성에 대한 주체권을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교육에 참여하면서 나 또한 성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인식과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한 발달장애인과 같이 성(性)에 대한 길, 즉 마이웨이를 찾아갈 수 있어서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발달장애인에게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발달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가족, 활동보조인, 친구 등)의 역할도 무척 중요합니다.

끝으로 탈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성(性),마이웨이'를 시작한 목적대로 10회에 걸쳐 진행된 성교육이 발달장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성(性)을 누리며 사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회 성북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면서...

박세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복작거리며
활동하고 있는 세영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생각할게 많을 땐
밀린 드라마를 짝~몰아서
초초집중하고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럼 잡념이 없어진다는...ㅋ
시끄러운 걸 싫어하긴 하는데
또 외로움을 잘 타는 그런
아이러니한 점을 가지고 있네요...ㅋ

2016년 9월 21일, 제1회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가 끝나고... 끝나자마자 내년에는 영화제 담당자 안 한다고... 계속할 것이라면 담당 바꾸라고 했던 나..... 그랬던 내가... 어쩌다보니~!!!!!! 2017년 9월 14일, 또 영화제 담당을 맡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년보다는 좋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특별한...형식적이고 차별화가 없으면 뭔가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센터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야 관람하러 오신 분들에게도 우리 센터를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개인적으로 나는 재미를 추구한다. 형식적이고 글로 쓰여진...말만 쪽~늘어놓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재미없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험 상 다들 지루(?)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 영화제니까 영화제답게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다... 크긱~!!!!

일단 내빈 축사를 간소화했다. 딱~! 진짜 필요한 것만..... 상황한 내빈소개도 안했다. (내빈석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관람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ㅋ) 그리고 축하공연도 다 안하기로 했다. 식사는 간식 형식으로...간단히...이런 거 좋다. 크긱~!



이번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영화제의 슬로건은

“혁명, 판을 뒤집다”

이 슬로건은 어찌 보면 활동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투쟁의 의지를 불끈불끈 하게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영화도 이 슬로건에 맞는 영화를 선정하기로...(영화 고르는데 눈 빠...질 뻔... 진행 시간 계산까지 하느라.....)

이외 고민으로는 센터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가 뭐가 있을까... 이것이었다. 문득 예전부터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글이 생각이 났다. 그것은 매년 상·하반기 발행되는 센터 매거진 조각그림에 실리는 글...(내 글이긴 하지만...ㅋㅋ) ‘육하는 여자’이다. 내가 평소에 쓰는 언어(육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런다.....ㅋ 읽고 있음 음성지원이 되는 것 같다고...)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애인의 현실이라고나 할까???ㅋㅋ 암튼... 약 10개의 원고 중 3개의 이야기만 추려서 만든 <육하는 여자>... 내부에서 제작된 영상이니 개막작으로.... 딱~!!!!ㅋㅋ

그 다음 나의 고민은...(사실 요 고민이 거의 97.5%(?) 홍보였다.....

작년의 경험(안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홍보에 열을 올리기로.....!!!!(소장님의, 홍보 잘해야 돼...홍보 많이 해야 해...홍보 많이 했어???...홍보 어디 했니??? 홍보..홍보...홍..보...x무한의 부담감을 가지고...진짜 부담감으로 쇼크 올 뻔 했.....)

솔직히 연대 단체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비장애인들이 많이 관람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마구 멘트(홍보문구, 포스터, 웹자보 등등)를 뿌렸다. 인식을 바꾸는 건데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이 이걸 봐야하지 않나???ㅋ 내 인맥(인맥도 없...지만...) 총동원.....진짜 부담감 장난 아니었음.....(물론 내부 활동가들도 열심히 해주었다.) 차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끝나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황설수설.....(내 속마음 표현을 할 수가 없.....ㅠ)

진짜 준비하고 끝날 때까지 2달 동안은 내 정신이 집 나가서 돌아올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았다. 요런 마음가짐(?)으로 다가온 영화제 당일... 딴 것도 딴 거지만 9월 14일이 마침 고 박종필 감독님의 49재...추모제가 시작되는 날이다....잠깐만...그..럼....우리 영화제에는....몇....명 없을....수도 있...겠...ㅠ..

복짝 복짝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

일단 관람 인원은.....대박이었다...히히~!!! 홍보에 열을 올렸던 성북구 내 고

등학교에서도 단체로 관람을 와주었고 성북구내 여러 복지관에서도 단체로 와 주었다.

그런데.....앗.....조마조마했던 음향사고가.....ㅠ 순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 머릿속이 멘붕 상태로 식은땀이 비질비질...

사회를 봐준 활동가가 다행히 지루하지 않게 멘트로 대처를 잘 해주었고 어찌 어찌 진행은 할 수 있었다. 오늘 영화제 진행 못하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순간순간 음향 사고가 있긴 했지만...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사회자의 맛깔스런 멘트가 빛을 바랬다. 그리고 너무 잘 해주어서 고맷다.....ㅠ

이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0여명이라는 인원이 관람을 해주었다. 작년에는 남았던 식사와 기념품도 다 떨어지고 모자랐다. 이럴 수가.....모자라진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간단한 영화평이나 응원하는 말들을 쓸 수 있는 나무모양의 게시판을 만들어 영화보고 나온 사람들에게 나뭇잎 하나씩 달아달라고 참여를 유도했는데 이 또한 반응이 좋았다. 암튼 이번 제2회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는 대박이다...ㅋㅋㅋ

작년보다는 좋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뒤로하고 진짜 작년보다 좋았다.(음향사고 빼면.....)

이번 영화제는 추모작이었던 <1968년, 그러나 37살>을 시작으로 개막작 <육하는 여자>, <손으로 전하는 뉴스>, <차별스타K>, <설레는 외출법>, 폐막작으로 <서른 넷, 길 위에서>가 상영 되었다. 이 중에 처음으로 내부에서 제작했던 <육하는 여자>가 반응이 장난 아니었다. 크긱~!!!!!! 역시..... 그 센터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제작했던 것이 관람하러 와준 사람들한테도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내부 활동가들이 다들 협조를 잘 해주었고 그 결과물 또한 좋아서 뿌듯했다.

우여곡절 끝에 제2회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는 마무리가 되었.....으나 집 나간 정신은 아직 안돌아오고 있.....뒷마무리를 생각하니.....흐헉.....

어쨌든~~!!!!!!!!!!!!!!

내년 제3회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는.....

모르겠다~!!!!!!!!!!!!!!

소세지의 〈육하는 여자〉 제작기

유지영

센터판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로 왕성하게 활동 중.
주로 유코디로 불리며, 과중한 짓을 술선수범해서 행하는
유래, 상쾌, 통쾌한 처자.



#1 센터판만의 영화제작 해볼까?

햇벌이 아주 뜨거운 7월, 점심을 먹고 티타임을 가졌다. 9월에 있을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센터판 매거진 속 '육하는 여자'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세영의 제안. "이렇게 찍으면 어떨까?", "이 장면은 이렇게 찍자" 등의 재밌는 의견들이 오고가고 9월 초까지 완성해보자 다짐하고 7월 7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2 아홉 가지 육녀, 소세지 어때?

센터판 매거진 속 '육하는 여자'는 세영이다. 일상에서 들려오는 지인들의 이야기, 혹은 본인이 직접 겪은 상황에 대해 세영은 육녀가 되었다. 첫 회의 때 매거진 속 9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다. 다시 읽어도 화가 나는 건 여전했다. 촬영기간과 등장인물, 소품, 배경 등을 고려해 이야기 3개를 추려냈다. 그마저도 완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소영이 지나가며 "뭐 도와줄까요?"라고 물었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세영과 지영은 소영도 영화제작에 끌어들인다. 역할을 나눌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소(영),세(영),지(영)이다!

#3 대본은 리얼하게!

유코디에서 유작가로 변신했다. 하지만 본업이 활동보조 코디니저라 밀려드는 전화와 방문상담, 매칭 상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근무 시간을 쪼개어 대본을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집중도 되지 않았다. 아근에 주말까지 합쳐 겨우 대본을 완성했다.(헉헉) 전체적인 분위기라던가 장면, 동선 등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대본을 썼다. 무엇보다 리얼

리티를 살리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평소 행동과 말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영화를 수없이 많이 만들었다.

#4 영화촬영은 즐겁게, 리얼하게, 진지하게!

영화의 영자도 모르고 촬영의 영자도 모르는 소세지는 은애와 첫 촬영에 나섰다. 다행히 첫 촬영은 들다방에서 이뤄져 조금 편안했다. 장비라고는 DSLR카메라, 삼각대뿐(조출하다). 촬영 후 모니터링 하면서 살펴보니 문제점이 많았다. 촬영 시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할 것, 조명과 소품 하나하나에 신경 쓸 것, 마이크의 중요성, 홍보영상을 위한 NG컷을 찍을 것. 촬영을 하면 할수록 기술(?)이 느는 것 같았다. 잘 찍고 싶었고,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소장직을 그만두고 문예판을 가야하나 고민한 서소장. 날씨 탓에, 시간 탓에 같은 장소를 3번이나 가야 했고, 촬영 때마다 같은 옷을 입고 출근해야 했던 재범. 평소 사투리를 알게 모르게 많이 쓰는데 촬영에 들어가면 허가 꼬이는 권국장. 편도염으로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녹음에 열성을 다한 소영. 망가질 대로 망가진 육하는 여자 세영. 센터판 활동가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5 편집은 아근을 신고...

제일 어려웠다. 고퀄리티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유료결제였기 때문에 구할 수 없었고, 만만한 게 무비메이커였는데 기능들이 워낙 단순명료해서 고구마를 먹은 듯이 답답했다. 손수 붙이고,

자르고, 음악 넣고, 자막 넣고, 이어붙이고, 듣고 또 듣고 수정하기를 반복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자리는 여느 편집실과 다름이 없었다.(활동보조 코디의 본분을 잊은 나를 열심히 서포트 해준 심보름 코디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미안해요. 수고 많았어요) 편집도 촬영처럼 날이 갈수록 손이 빨라졌고 감이 생겨 '이쯤이면 6초쯤 될 거야' 하고 붙이면 딱 들어맞았다. 하면 할수록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내년에는 더 잘 찍어보아야지, 이참에 편집프로그램을 구매할까'와 같은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아마 제 3회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 때도 출품할 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6 드디어 개봉박두!

영화제를 일주일 앞두고 센터판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시사회를 열었다. 조금씩 완성될 때마다 보여 달라내 내 자리로 모여들었던 활동가들이었기에 재미가 덜할 것 같아 걱정 됐다. 보고 또 본 장면들이지만 활동가들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웃음소리가 커져갔다. 기뻐다. 영화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고 '수고했어요. 멋져요. 재밌어요.' 등의 말이 기본 좋았다. 좀 더 잘 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만족한다. 진짜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땀방 터졌으면 좋겠다. 아니, 터질 거다~!! 소세지가 만든 첫 번째 영화! 궁금하면 센터판으로 놀러오라!

8번째(?) NONO 1st 종로보치아대회!!!!

임지영

열정 대박 체력 대박 힘 있고 씩씩하고
넘치는 호랑이같은 받아 하고 싶은 거 있음 끈질기게 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유아탁하고 생각 많다가도
생각하는 게 귀찮으면 소멸시켜 생각이 짧아지지만
의외로 의리가 있으며 사람을 좋아하고 비글미 넘치며
먹을 것을 엄청 좋아하지만 그중에 양고기를 엄청 좋아하고
세퍼드처럼 포악하지만 따뜻한 면이 있고 정의를지만
어쨌든 폭악한 육식공룡입니다.



쓰려고 하니 기억이 안 나 종일 뇌를 풀가동 했네요,.. (세상 배고파라)
8번째 종로보치아대회이지만 저에게는 처음인 보치아대회이네요.
준비를 하면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 부분은 간식 준비네요. 매주 수요일마다 소소하게 보치아교실의 간식만 담당하다가 100여 명의 간식을 준비하려니 정말 어마 무시했죠. 잊을 수가 없네요. 센터에서 각 팀별로 간식을 분배하는데 센터가 포장공장으로 바뀌던 모습이 웃펠어요. ㅋㅋㅋ 그리고 팀별 명패를 만들 때에도 A4크기를 퍼즐처럼 맞추고 대진 표에 들어갈 팀별 명패를 자를 때에 많이 어렵기도 했어요.

보치아 당일에는 출근시간보다 일찍 가려니 힘들 것 같아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자기도 했어요. 당일 날 많이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부르기도 하고 의자도 나르고 필요한 물품을 사러 밖으로 뛰어 갔다 오기도 하고.. @_@ 많이 어수선하다가..

보치아 시작! 큰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오랜만에 본 다른 센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판부터 질 줄 알았는데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도 했어요(시작이 끝인 줄 알았는데 ㅋㅋㅋ).

드디어 점심시간!!!!!!!!!!!!!!!!!!!!!! 너무 배고파서 조금 매웠지만 맛나게 흡입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음번 시합에는 밥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에 의아했어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바라시는지... 참

오후에도 중간 중간 너무 뛰어다녀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간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간식이 보이면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말씀에 농구대에 숨겨두고 야금야금 빼먹기도 했어요. ㅋㅋㅋ 추첨을 할 때, 인상적인 것은ㅋㅋㅋ 수지 씨가 추첨 내내 옆에서 뭐라고 큰소리로 하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 추첨할 때 의자 정리하느라 정신없어서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ㅂ;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정신없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사람들도 많이 보고 보치아 시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됐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고,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해서 진짜 재미있었네요!!! (세상 민망하네)



긴장과 기대 속에 찾아간 야학

창현 님의
사회복지실습 후기

≡≡≡ 창현

안녕하세요. 이번 8월 3주 동안 사회복지실습을 한 창현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8월 2학기 시작과 함께 실습을 시작한 날 긴장을 하고 노들야학에 방문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광화문농성장에서 보았던 노들야학에 실습을 직접 하러 간다는 긴장과 기대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노인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있지만 장애인기관은 처음이기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서 수업을 보조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 이틀 수업을 참관하면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구나, 하는 방법을 배우고 인강원 학생분들과 관계를 무사히 이어나가 하루하루 즐겁고 여태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광화문농성 5주년 행사에도 참가하여 학생분과 선생님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것도 너무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차별은 고리처럼 이어져 한 곳이 차별을 당하면 그 뒤는 나의차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연대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실습을 하며 장애인교육의 필요성과 자립의 중요성,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의 폐지,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이 얼마나 절박하고 필요한지 느끼게 된 실습이었습니다.



노들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배움터

조진영 님의
사회복지실습 후기

≡≡≡ 조진영

안녕하세요~ 저는 올 8월 1일부터 15일간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한 조진영입니다.

저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보조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흥미가 생겨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에 관심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저에게 약간의 멘붕이었지요. 나이도 이름도 모르는 학생분들과 교사분들 사이에서 저는 열의만 가득할 뿐 해매는데도 처음 보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 주시고 허물없이 다가와 주시는 학생분들 덕분에 힘이 나서 즐겁게 실습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의 수업은 단순히 국영수와 검정고시 위주의 공부만 하는 것을 벗어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배움터라 무척 신선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악기뿐 아니라 생소한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진행되는 음악 수업과 다양한 도구와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표현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미술 수업. 자신이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아프리카 댄스, 자신의 이야기를 작은 책으로 만들어보고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는 진 수업,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는 직업체험과 더운 여름 땀 뻘뻘 흘리며 텃밭체험과 비누 만들기과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수업은 저도 해보지 못한 것이어서 실습하면서 같이 해보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헌데 명백한 제도의
희생자였던 그이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나라는, 장관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인상 깊었던 것은 개교기념일에 시청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
고서 - 버스를 타자>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의 기록이자 열정적인 민주주의 활동으로,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야학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모두가 안
된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초심을 잃지 않고 노
들의 정신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기억하려는 노력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돈보다는 사람임을
알리는 노들에 행동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도 되
었다가 모임장소가 되기도 하고 회의장소와 카페가 되어 사람들이
모여 편하게 쉬고 놀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인 들다방, 해마다 시
행되는 필수 교육을 비용이라며 온라인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활동가들에게 최대
한 유익하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노동자를 위한 필수교육, 그리고 5
년간 꾸준히 이어져온 광화문 농성장에 노들의 정신이 꾸준히 이어
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노들의 정신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
기를 기원합니다.

실습기간 동안 잠깐 와서 사라지는 실습생에게 항상 친절하시고
배려해주시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분들과 활동가분들 정말 고맙습
니다. 실습 일정 관리 하시느라 고생하신 혜선 쌤과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실습자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시려고 노력해주신 교
장선생님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모두 모두 감사드
리고 행복하세요~

시각장애 교사의 길

김현용

구룡중학교 영어교사,
한국시각장애교사회 회장

들어가며

2010년 3월, 교단에 처음 섰습니다. 서울시에서 1급 시각장애인이 일반학교
교사가 된 것은 최초라고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
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초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참 많은 수식어가 필요하군!’

그랬습니다. 서울시에는 이미 많은 장애교사가 일하고 있었고 저는 시각장애 1
급으로서 최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만큼 ‘최초’라는 말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하지
만 중증 장애인 교사가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뭇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학년도부터 장애교사가 별도의 구분모집을 통해 배출되기 시
작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2017년 현재 전국의 장애
교사는 약 3,500명에 이릅니다. 그중 약 500여 명이 중증장애인이고, 그중 90여
명이 저희 한국시각장애교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각장애교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전맹 교사의 경우 보통 보조원
과 함께 수업에 들어갑니다. 보조원은 학생들에게 수업자료를 나눠주고, 컴퓨터를
조작해주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거나 장난을 칠 때 지도하는 일을 합
니다. 수업을 준비할 때도 시각자료를 찾거나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시
력 교사의 경우에도 학교 차원에서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에 요구해
서 보조원을 배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조원이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습니다. 교
사가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전자시스템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필요
한 보조기기가 지원되어야 하며, 각종 온·오프라인 연수가 장애인 친화적이어야 합
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보조원 외에 나머지 지원을 교육청이

**경력이 쌓여도
담임이나
주요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보조원만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다른 많은 시도도 보조원에 대한 처우가 매우 낮아 대부분의 시각장애교사들이 매년 새로운 보조원을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장애교원에 대한 지원을 오로지 민원에 의해 그때그때 처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증 장애교사는 물론 상당수의 중증 장애교사들도 필요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보조원 지원을 넘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장애교원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장애교사가 교사로서 성장할 기회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2016년 7월에 교사회 내에서 작은 설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조사에 참여한 38명 중 담임 경험이 없는 사람이 73.7%, 부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 97.4%였습니다. 교육 경력이 쌓여도 교육 경험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휴직 2년을 제외하고 6년째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담임을 맡은 적이 없고 2년은 아예 아무런 업무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대인관계와 사건들은 담임 및 행정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담임을 맡는 것은 학생과의 직접적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고 다른 교사와의 깊은 유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담임과 비담임은 학교 내에서 물리적으로도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많은 서울의 중학교들은 교무실 자리 배치를 업무가 아닌 학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무실이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자연과학부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는 그 학년의 담임교사가 먼저 배치되고 자리가 부족하면 비담임교사는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자연과학부 등에 배치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는 모든 수업이 1학년 수업임에도 1학년부실이 아닌 부장님들이 모여 계신 중앙 교무실에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행정업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어서 부장님들로부터 업무를 특별히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 귀동냥할 기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학년별·반별로 시행되는 행사에 대해서도 먼저 물어보지 않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시각장애로 인해 교실이나 학교 게시판에 붙은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들을 기회마저 없으니 이중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뿌듯한 순간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지난 5월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학교가 있는 구룡역 1번 출구를 나섰습니다. 발을 인도에 내딛는 순간 전에는 없던 것이 발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그 전 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몇 걸음 걷는데 얼굴에 절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 점자유도블록이었습니다. 좁다란 길을 점자블록을 밟으며 걸어가는데 어찌나 편하던지요. 흰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출퇴근길에 불안감을 훨씬 덜 느낄 것이었습니다.

누가 점자블록을 깔아달라고 민원을 넣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점자블록이 생기는 일은 누군가의 민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민원을 넣으셨을까?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을지 계속 궁리하면서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를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 3주 전에 중1 아이들이 제게 와서 인터뷰해 간 기억이 난 것입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어른들이 물어보는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학교생활을 하시며 불편한 것은 없으신가요?”

저는 딱히 없다고 답했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에게 시나 국가 차원의 정책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터였습니다. 다만 학교는 괜찮는데 출퇴근길에 점자블록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지나가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깊게 물어보지 않고 곧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인터뷰였기에 저는 곧 그 인터뷰를 한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교무실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인터뷰하러 왔던 학생 중 한 명의 반으로 찾아갔습니다.

“야야, 저번에 선생님 인터뷰해 간 건 잘 진행이 됐니?”

“네. 지난주에 보고서 잘 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가 뭐에 대한 거라고 했었지?”

“사회참여토론이란 건데요, 보고서 결과가 잘 나오면 학교 대표로 나가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앱에 글 올려서 지금 점자블록이 깔렸어요.”

고마웠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한 그 어느 순간보다도 가슴이 가장 벅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자가 저를 인터뷰해 갔습니다. 힘 있고 높은 분에게 장애 교사들의 고충에 대해서 건의한 것도 수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구청장에게 바란다'
학생이 올린 게시글에
도로관리과의 답변



점자블록이 깔린 구룡역 앞 길,
점자블록을 따라
김현용 교사가 걷고 있다.



게 해준 것은 그들이 보인 관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공문 한 장, 기사 한 페이지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직접 행동을 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1 아이들은 제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구청에 올린 글은 하루아침에 제 삶을 바꾸고 구룡역 근처의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줘야 할까요.

학교에서 감동을 받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날은 힘겨운 씨름의 연속이지만 결국은 교사로서 얻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각장애 교사가 교실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장애인과 넓게는 우리 사회에 우리가 받은 것을 공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시각장애교사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우선은 같은 장애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역량을 높여가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교육청과 연수원, 장애인고용공단과 복지관 등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교사의 집단 역량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하

듯 장애교사는 비장애인이 다수를 이루는 학교에 기능적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담임과 주요 업무를 맡는 장애교사가 더욱 늘어나야 합니다.

셋째는 더 많은 사회참여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은 빈곤선에 놓여 있고 장애인의 사회 진출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업적 안정을 누리는 극소수의 직업군으로서 시각장애교사가 사회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다른 장애인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고 사회는 더욱 포용적인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우리 사회에 몇 없는 자아실현이 가능한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지위와 수입 덕분에 장기적 관점에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교육의 특성상 끝없는 연구와 자기 계발이 요청됩니다. 그러한 직업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높은 삶의 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시각장애교사들이 스스로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시각장애교사가 아닌 분들도 이러한 시각장애교사의 노력에 지지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교사들의 앞선 도전과 열정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교사는 아직 블루오션과 같은 직업입니다. 저와 시각장애교사들이 더 많은 장애인이 교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 잘 닦아놓겠습니다.

* 지난 7월 시각장애교사회 회원들이 노들야학을 찾아와 상근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시각장애교사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김종환 첫 음반 '새 길을 간다' 이야기

김종환

1989년 성남지역 노동자 노래모임 '아우성'에서 활동했고, 이후 전국장애인가족협회 노래패 '노뚝돌', '장애인문예창작단'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1993년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구성원들과 함께 노동야학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집행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거하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봄날' 등의 노래를 만들고 불렀습니다.



때론 맘속에 멍이 핀다. 살그락살그락
때론 가렵다. 근질근질
때론 투쟁한다. 불끈불끈

그렇게 장판 생활 27년... 음반이 만들어졌다.

아프지 않은 생이 어디 있겠으리오마는 그래도 보듬으며 이렇게 간다.

인생을 살면서 한 매듭 한 매듭 엮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음반을 생각한지 15년 만에 한 매듭을 묶었네요. 이제 또 다른 매듭을 향해~~^

김종환 첫 음반 새 길을 간다

조용한 삶의 읊조림, 그리고 장애해방, 노동해방을 꿈꿉니다.



탈시설 자립생활, 나의 우리의 힘으로

새 길을 간다 (김종환, 김호철 글 / 김호철 가락)

어릴 적 아스라한 그 초등학교 소풍날 이야기

소풍날 (김종환 글 / 가락)

시설에서 나와 10년 동안 키운 씨앗

꽃님에게 (김종환 글 / 가락)

세월호 영령을 뜨겁게 추모합니다

세월 (김종환 글 / 가락)

너의 문자를 기다리며 꿈꾸는 혁명

허투루 (김종환 글 / 가락)

젊음은 흘러가도 우리 가슴 속 노래 잊지 않게

당부 (정요경 글 / 가락)

살아서 끝내 이루고야 말 노동해방의 나라

후회하지 마라 (김호철 글 / 가락)

이것이 우리의 파업 우리의 무기

점거하라 (김종환 글 / 가락)

군계 움켜질 꽃병의 기름 너에게 주마

꽃다지고 (최준 글 / 윤민석 가락)

옆의 소중한 동지에게 해주고픈 말, 고마워요

마중물 (박은영 글 / 가락)

사회적 타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항만 (김종환 글 / 가락)

걸의 동지가 있어 참 행복합니다

그대가 있어 (김호철 글 / 가락)

* 음반 15,000원입니다.

* 구글링크(<https://goo.gl/forms/ywMmyTjrP4scFAZw1>)를 작성해 보내신 뒤,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입금 뒤 연락처, 주소,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 연락처: 010-4396-2584 김종환(국민은행 9-4396-2584-60)

* 멜론, 벵스, 소리바다, 지니뮤직, 네이버뮤직, 카카오뮤직 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들 책꽃이

광인, 심연을 받아들이다!

루迅의 「광인일기(狂人日記)」

최진호

노들장애학공리소 세미나 회원이다.
화요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리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보낸다. 공리소 세미나를 통해
흥미로운 책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좋아하는 글은 니체, 루迅, 푸코의 글이다.



루迅

1. 절망과 희망의 사이

1918년 베이징의 샤오싱회관, 저우슈런(周樹人)의 방으로 친구 진신이(金心異)가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온 목적은 단 하나. 평생에는 교육부참사로, 퇴근 후에는 자신의 방 한 칸에서 비문의 탁본을 뜨거나 옛 글을 모으는 등의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던 그의 친구에게 글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저우슈런은 그의 부탁을 선선히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희망과 절망, 글의 효과와 글의 무력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가령 말일세, 쇠로 된 방인데 창문도 전혀 없고 절대로 부술 수도 없는 것이라 하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네. 오래지 않아 모두 숨이 막혀 죽겠지. 그러나 혼수상태에서 죽어 가므로 결코 죽음의 비애 같은 걸 느끼지 못할 걸세. 지금 자네가 크게 소리를 지른다면 비교적 정신이 돌아온 몇 사람은 놀라서 깨어날 걸세. 자네는 이 불행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구제될 수 없는 임종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미안하지 않다고 여기나?”

“그러나 몇 사람이 깨어 일어난다면 이 쇠로 된 방을 부술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걸세.”
(『자서』, 『남함』)

저우슈런은 희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믿지 않는다 해서 희망이라는 미래의 일이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진신이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에게 글을 쓰겠다고 답합니다. 힘들게 앞으로 나가는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근대 소설 「광인일기」, ‘노둔하고 빠른’이라는 형용모순의 이름의 작가 ‘루迅’ (魯迅)이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루迅은 1918년 문화혁명의 기운을 만들어가고 있던 『신청년』에 「광인일기」를 게재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열기 속에서도 루迅은 쉽게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설 속의 인물들은 고립되어 있으며, 웃고 말할 때조차도 서로 결눈질을 합니다. 모두 자신의 어둠 속에서 갇혀 있는 듯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 인물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2. 광인의 각성과 식인의 꿈

한 사내가 자신이 온통 정신을 잃고 지내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맑아진 것이죠. 그 순간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흘끗흘끗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들. 웃고 말을 걸었을 때조차도 흘깃 보는 께진



눈. 그 눈들의 홍수 속에서 그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시선의 의미를 찾고자 몸부림칩니다. 마침내 자신의 가족에게서, 그리고 자신이 배워왔던 글들 속에서 이 시선의 비밀을 읽어냅니다. 그것은 식인(食人) 습관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잡아먹기 위해 먹잇감을 노려보는 시선들. 자신이 먹힐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몸을 전율시킵니다.

그는 공포에 맞서 사람들에게 식인의 습속을 벗어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먹었던 이들 조차 먹잇감이 되는 윤회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결국 이 종족은 사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진실을 똑바로 보라고 다그칩니다. 자신의 진심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한사코 이 패거리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은 고칠 수 있어. 진심으로 고쳐먹어야 돼! 장차 사람을 잡아먹는 놈들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 너희들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자신도 다 잡아먹히고 말 거야. 아무리 많이 낳는다 해도 진정한 사람들에게 멸종당하고 말 거야. 사냥꾼이 늑대를 모두 잡아 죽이듯이! 벌레처럼 말이야!”

그러나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식인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식인의 삶을 버리는 대신 사람들은 애써서 이 문지방, 문턱을 넘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광인이 이 문지방을 넘어서라고 큰소리고 외치지만 그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인간은 어쩌면 자유보다는 부자유를 더 좋아하는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여 힘들게 자유를 찾기 보다는 현상 유지라는 부자유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의 고통 속에서 쾌락을 맛볼지언정 다른 삶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나가려 하지 않곤 합니다. 정말 애써서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인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無明)의 존재, 빛이 없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존재인 것일까요?

사실 어떤 이념이나 논리 이전에 삶을 추동시키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직해내는 원초적인 경향성, 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될 때 드러나지 않지만 그 기저에 놓여있는 무형의 양상들. 이 무형의 지대를 통과하지 않는 한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령 광인이 자오 영감이나 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한낱 미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광인은 좌절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소통할 수 없는 상황. 그들과 광인 사이에 높은 단절의 벽이 펼쳐 집니다. 벽 속에 갇힌 광인의 절규!

3. 적막과 심연

절규로서만 끝났다면 「광인일기」는 전통사회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이라는 '전형적인 계몽의 이야기'에 그쳤을 겁니다. 그러나 루쉰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광인은 자신이 비판했던 식인의 습관에서 자신 역시 자유롭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죽은 누이동생을 자신의 큰 형이 밥이나 반찬 속에 몰래 섞어 자신에게 먹였으리라는 확신입니다.

“4천년 동안 수시로 사람을 잡아먹던 곳, 나도 여러 해 동안 그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야 비로소 명백히 알았다.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이동생의 고기 몇 점을 먹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내 차례다. 4천년 동안 사람을 잡아먹는 이력을 가진 나, 처음에는 몰랐으나, 지금은 명백히 알고 있다. 참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무명' 속에서 식인의 풍속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광인은 그들의 어둠을 밝혀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들과 달리 '진실'을 알고 있고 '식인'만은 하지 않았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 역시 '식인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게다가 광인 자신도 그들처럼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턱 밖에서 넘어오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처럼, '빛'을 간직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광인 역시 자신만의 고유한 성안에서 그들과 만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 역시 어둠 속에서 있었다는 것. 결국 비판자인 광인도 존재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과 공생하는 삼쌍둥입니다.

그 순간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찬성도 반대도 불가능하며 마치 자신이 아득히 끝없는 황야에 버려진 듯해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적막감 속에서 광인은 자신이 한 번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영웅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쩔 수 없는 적막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빛들을 내려놓습니다.

4. 출구

빛을 내려놓고 적막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광인이기를 멈추게 됩니다. 대신 삶의 영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삶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어둠 속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애써서 무명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듯이, 애써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광

인 역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인이었던 사람이 모지(某地)로 일을 하러 떠난 것은 상징적입니다. 물론 그에게 펼쳐질 길은 밝은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옛적과 별반 다름없는 어둠 속에 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처럼 어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외려 어둠을 응시하며 어둠과 몸을 섞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어둠에 절망해서 포기하는 대신 어둠을 받아들여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삶으로 말입니다.

동네 한 바퀴

3분 거리 동네 친구, 어린이어깨동무

남과 북의 어린이가
어깨동무하는 세상을 꿈꾸며

김유미

노들야학 명함을 들고 다니며
세상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다 좋은데 이 친구들이 하자는 걸
해보느라 알 수 없게 바쁘다.

노들야학이 '대학로' 생활을 시작한 지도 십년이
다 되어가네요. 2008년 새해 첫 평일에, 마로니에공
원에서 천막을 치고 교육권 투쟁을 시작하고, 한겨
울 팔십일을 공원에서 보낸 끝에 야학은 지금의 동송
동 유리빌딩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대학로 금싸라
기 땅 100평과 장애인야학이라는 이름 사이의 부조
화를 헤쳐 나가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휠체어 접
근이 가능한 동네 맛집들을 섭렵해가던 즈음. 어쩌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 날이면, 반가운 단체들의
간판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동네에서 좋은
일하는 사람들과 잘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
겼습니다.

마침, 노들의 이런 바람과 비슷한 마음을 품은 분
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공간의 이름처럼 이껏저
것 잇는 것에 큰 뜻을 가진 '책방이음'의 조진석 지기
님이었는데요. 이 분은 노들과 친구가 된 뒤로, 이음
의 친구들을 노들에 데려와 모임을 작당하기 시작했
습니다. 그렇게 시네마달을 만나고, 어린이어깨동무
를 만나고, 동송교회를 만나고, 녹색교육센터를 만나
고, 송석복지재단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사실 좀 어

색했는데 만나고 또 만나다보니 낯선 얼굴도 익어지
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씨네마로>라는
동네 다큐 상영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
네마달이 이명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였다는 사실
과 함께 경영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마구 퍼지던 때
였습니다. 시네마달을 응원하고 뭐라도 하면서 같이
있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3월에 <씨
네마로> 첫 봄 상영회를 잘 치렀고 세 번째 가을과 겨
울 사이 상영회도 진행 중입니다.

아... 이번 [동네 한 바퀴]에서 소개하는 곳은 어린
이어깨동무입니다. 어린이어깨동무와 노들의 관계
를 설명해보려 한 것인데, 옛 이야기로 서설이 길었
습니다. [동네 한 바퀴]가 오랜만에 나오는 것이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어깨동무는 노들야학에서 나와 솫
대박물관을 향해 건다가 오른쪽 길로 꺾어 다시 조금
만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서울대병원 의대 건물 안
에 있습니다. 3분 안에 도착합니다. 동네 모임 덕분
에 요새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는 어린이어깨동무의
배문주 활동가에게 어린이어깨동무 이야기를 들어봤
습니다.



노들바람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어깨동무 회원사업팀에
서 4년째 활동하고 있는 배문주라고 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사무국에서 닉네임을 사용해
요. 저는 '유자'랍니다. 제가 유자차를 엄청 좋아하
기도 하고, 또 '유유자적'의 출입말이기도 해요.

어린이어깨동무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어깨동무는 남과 북의 어린이가 어깨동무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어린
이평화단체입니다. 남과 북의 어린이가 몸과 마음으
로 어깨동무할 수 있도록 대북지원, 평화교육 등 여
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북쪽 어린이는 영양이 부족해 남녘 어린이보다 키
가 더 작아요. 그래서 북쪽 어린이를 위해서는 병원
을 짓거나, 콩우유(두유) 공장을 짓는 등 의료지원과
영양지원을 주로 하고 있어요.

북쪽과는 달리 남쪽 어린이를 위해서는 평화교육
을 주로 진행하고 있어요. 마음의 키를 맞추는 활동

들이죠. 북쪽에도 우리와 같기도 다르기도 한 '친구'
가 있다고 알려주려고 해요. 초등학교를 방문해 평화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매년 여름에는 어린이 평화
캠프도 열죠.

이 밖에도 매년 회원과 함께 하는 평화기행, 다양
한 평화 이야기를 나누는 한반도 평화읽기 등을 진행
하고 있어요.

단체 활동 내용이,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요즘 활동하기 어떠신지?

2006-60

2007-62

2008-55

...

2013-2

2014-1

2015-1

2016-2

이 숫자들은 그 해에 어깨동무가 북녘 어린이에게
마음을 전한 횟수입니다. 한 눈에, 마음에 쿵하고 와
닿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희망적이었어요. 정부가 바뀌고, 지난 정
부 때는 계속 허가받지 못했던 대북접촉 승인도 받
았고(대북지원을 위해서는 북쪽 사람을 만나야하는
데, 그럴 때마다 접촉승인을 받아야한답니다.) '혹시
평양 방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했었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어렵겠죠.

남북관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대북지
원에 대해 많이 공감해주지지 못하는 것이 힘들어요.
특히 대북지원 기사 등에 달린 댓글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 분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



하지만, '대복지원은 분리해서 생각해야하는데...' 하는 생각도 들구요.

너무 오랫동안 남과 북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남과 북이 만났다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린이들이 종편이나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나 뉴스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죠. 선입견이 생겨버리니까요.

그래도 꾸준히 마음을, 힘을 비축해두고 필요한 순간에 발휘하려고 회원들과 어깨동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을 하면서 재미있는 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러던 중 NGO나 사회적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찾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제 관심분야였던 어린이나 동물, 환경 NGO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 생각을 따라 어린이를 위한 NGO인 어린이어깨동무에서 활동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대학생 때 새터민 초등학교 교육봉사를 하며 한 아이가 친구에게 "우리 북한에서 배고파서 진짜 힘들었잖아."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느꼈던 아픔이 다른 곳이 아닌 어린이어깨동무로 저를 이끌어준 것 같아요.

**노들과 첫 만남은 언제였습니까?
(어땠는지도 이야기해주세요)**

노들을 만나게 된 건 대학로 이음책방 조진석 지기

님을 통해서예요. 작년 어느 날 지기님과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노들로 점심을 먹으러 간 것이 노들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지기님은 거의 대학로 단체 간 중매인이시죠^^)

그 때 뉴미 쌤과 교장 선생님도 처음 뵈죠. 노들은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공간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노들 이름처럼 노랄더라고요.

참, 노들에서 먹었던 카레와 김치가 참 맛있었습니다! ㅎㅎㅎ

**노들을 만나고 달라진 게 있는지요?
기억에 남는 일이나...**

노들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보는 세상이 넓어졌어요. 부끄럽지만 장애인의 고속버스 탑승 문제나 선거 투표 장소 등은 그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였거든요. 멀리서 단순하게만 바라보다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된 거죠.

기억에 남는 건 노들 후원주점이에요. 뉴미 쌤이 후원주점에 초대하면서 살면서 가장 많은 장애인들과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나중에는 같이 갔던 일행이 떠나고 혼자 공연을 기다리며 앉아있었는데, 혼자 있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우린 다~같이 친구' 이런 느낌이랄까? 재밌었어요.

**노들과 어깨동무, 어떤 연결 고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
어떤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노들과 어깨동무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어떤 활동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면 무지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깨동무와 노들, 우리 안의 소리를 따로 또 같이 더 궁리해봐야겠어요.

노들에 하고 싶은 말

노들 홈페이지를 보니 이런 말이 있던데요? '우리는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로 남는 다는 것은 인생을 걸어볼만한 일입니다.'

어깨동무나 노들이나 꽃길만 걸진 못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어깨에 힘을 빼고 한 발짝씩 걸어간다면 먼 길도 끝까지 갈 수 있겠지요.

노들, 지금까지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길을 나아가주세요! 어깨동무도 뒤에서,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들은 사랑을 받고

박현 동문님, 건강하시죠?

1999년 입학 2001년 졸업 이후
장애인운동에 매진

김명학

노들야학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통 채팅방을 통해 간 떨어지는 소식이 들었다. 전장연에서 강원도청 앞에 찾아가 권리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던 날이었는데, 야학 동문인 박현 님이 몸이 안 좋아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다는 소식이었다. 간이 철경 내려앉았다. 다행히 바로 시술을 받고 며칠 뒤에 퇴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현 님은 노들야학을 다니다 졸업했다. 몇 년간 강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한다. 몸은 괜찮은지 걱정이 겹치지 않기도 했고, 요즘은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 [노들은 사랑을 받고]에서는 박현 동문을 만나기로 했다. 지난 9월 어느 날 야학 교실로 찾아와준 박현 동문과 옛날 야학이야기부터 근황까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 편집자주



김명학 안녕하세요? 노들야학에는 언제 오셨나요?

박현 1996년 나무누리 중앙게시판에서 노들야학 박경석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글을 보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노들은 장애인야학이었다. 그때 장애인 투쟁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고, 어떤 날 이덕인 열사가 참여한 아암도 장애인 노점 투쟁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복사해서 인터넷 공간에 띄우기도 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 장애인야학이 서울에 노들야학, 부산에 참배움터뿐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즈음 직장에 다니다가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알게 된 형들과 뜻을 합쳐 사무실 하나를 오픈하게 되었지만, IMF 등의 이유로 풀딱 말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황하다가 마음먹고 중졸 검정고시를 혼자 공부해 운 좋게 합격했지만, 고등과정은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그때 당시 지인들(배웅호 총장 등)이 서울에 있기도 하고 권유도 있어서 1999년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노들야학을 찾아갔고, 그때 처음 면접을 보신 분이 박경석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김명학 노들야학 생활은 어떠했는지요?

박현 저는 나를 조용히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술은 1년에 서너 번 정도, 야학 행사 후에 마신 게 전부고, 야학 초기에 가락시장 부근에서 공공근로를 했었거든요. 공공근로를 마치고 야학에 가 수업을 하고 야학의 봉고차를 타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 게 저의 하루 일과였어요. 어느 날 공공근로를 마치고 야학에 가보니, 칠판에 휴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차산 오르막길을 올라 왔는데 휴강이라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야학의 분위기는 집회에 안 나가는 학생들이 눈치를 보고 그랬어요. 저는 집회에 나가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았고, 집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녁 수업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수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김명학 그때 노들야학에서 수업을 하자는 쪽과 집회를 나가자는 의견의 마찰이 있었지만 수업과 집회는 50 대 50으로 둘 다 중요하다, 집회도 나가는 사람만 나가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야학은 주요 목적이 수업이었습니다.

박현 형이 술만 마시면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명학 노들야학에서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요?

박현 부산 참배움터 야학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노들야학은 형, 동생으로 불렸어요. 부산 참배움터 야학에선 학생에게는 누구 씨, 학생은 누구 선생님, 이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박경석 교장 선생님께서 인권 강의를 하셨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하하

김명학 노들야학은 교사와 학생 사이가 수직관

계가 아닌 수평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과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처음 보는 사람은 당황스럽지만 그렇게 부르다보면 서로가 사이가 좋아져요. 언제 노들야학을 그만두었는지요? 그만두게 된 동기는?

박현 노들야학에서는 고등과정만 공부했어요. 1년 8개월 만에 합격하고 2001년 6월 졸업했습니다.

김명학 박현 동문께서 지금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박현 저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에서 동료상담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74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가입해 있습니다. 센터연합회 쪽에 가입한 센터는 100개가 넘지만...

김명학 지금 하시는 일에 만족을 하시나요?

박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하는 일 중 동료상담이 중요한데도 이 문제를 무게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 센터들이 종종 있어요. 한자협 동료상담 위원회는 봄가을엔, 사업이 왕성하고 저도 바쁩니다. 동료상담이 갖는 매력을 낮게 평가하는 활동가들은 사실 이 분야에 활동경험이 없어서입니다.

김명학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한 사람 노력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인식들이 많이 변해야 하겠네요.

박현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시설이 없어지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오지 않는 한 동료상담은 중요합니다.

김명학 최근에 결혼을 하셨는데요. 결혼한 소

감과 결혼 후 생활의 변화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박현 저는 결혼도 현장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 좋은 점보다 불편한 가짓수가 더 많지만 그래도 결혼은 해볼 만한 거고,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결혼 전 25~26년을 혼자 하여서 도를 넘지 않고 선을 지키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건강문제도 있고 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간이 여유로워졌고요. 술마저 끊어 대인관계는 다소 소홀해졌다고 하지만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김명학 몇 십년간 혼자 생활을 했는데 이젠 나를 걱정해 주고 챙겨 줄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요?

박현 서울엔 가족이 없고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많아서 많이 외로웠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김명학 끝으로 노들야학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박현 노들야학이 많이 발전하고 규모가 커졌어요. 야학에서 급식도 하고 거의 학교로 변화를 했어요. 노들야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노들야학에 서만 머물지 말고 노들야학을 벗어나서 전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들야학이 교량 역할을 해줬으면 해요. 노들야학이 몸집만 커지는 것보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학 긴 시간 인터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 10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주)머스트자산운용 강남훈 강문형 강병완 강복현 강선아 강성윤 강수혜 강영미 강영미2 강용원 강정자 강주성 강현욱 강희관 강희연 고경신 고경화 고동수 고명수 고명희 고선희 고승현 고아라 고재현 고정화 고제현 공명렬 공선화 공정옥 광노근 광상아 광성자 광영미 구경민 구수준 구승기 구자욱 구정서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기진 권미경 권병주 권순만 권순성 권영주 권영진 권윤희 권익재 권종근 권진영 권태국 권혁은 권현기 김가경 김각균 김건욱 김건형 김경은 김경혜 김관희 김광국 김규리 김규태 김근식 김금례 김기룡 김기룡 김기성 김기우 김남 김남수 김태희 김도경 김도현 김동은 김동진 김두경 김명학 김명화 김문수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미영2 김미주 김미현 김민 김민림 김민아2 김민영 김민자 김민희 김범수 김범식 김병모 김병열 김보라미 김보연 김보영 김봉덕 김봉석 김부연 김상원 김석규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영2 김선욱 김선화 김선희 김설민 김성미 김성은 김성현 김성희 김세영 김소영 김소희 김수경 김수영 김수한 김수현 김수호 김숙이 김순남 김승혜 김아람 김안지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욱 김연희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승 김영욱 김영희 김영희2 김용남 김용성 김용우 김용욱 김용진 김용진2 김우경 김원숙 김유미 김유정 김윤경 김윤석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미 김은주 김은희 김이종 김인숙 김인숙2 김재경 김재양 김재희 김정미 김정민 김정민2 김정순 김정하 김정현 김종윤 김종호 김준 김준호 김준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연2 김지영 김지혜 김지은 김지현 김지환 김진수 김진수2 김진우 김창배 김태승 김태인 김태형 김태훈 김판균 김푸른솔 김필순 김한민 김현영 김현식 김현영 김현주 김현지 김현화 김형배 김혜미 김혜옥 김혜진 김홍희 김희정 김희창 김희현 나선영 나정숙 나혜니 남대호 남두형 남정민 남지현 남효진 노경애 노규호 노미경 노성경 노의현 노현택 노혜련 도희선 도희정 류명옥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향희 류혜인 마미주 맹보문 문건화 문경희 문병준 문상태 문성원 문소리 문예진 문지의 문창배 민아영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광수 박금숙 박누리 박다정 박명숙 박명숙2 박민경 박민영 박민우 박보건 박상일 박상호 박서희 박선애 박선은 박성욱 박성환 박성희 박세단 박세라 박세진 박세호 박수인 박수진 박승하 박시백 박애경 박여의 박연희 박영민 박영환 박완신 박은미 박은정 박은정2 박장근 박장근 박재국 박정수 박정원 박정희 박종진 박종철 박주원 박준호 박지민 박지영 박진우 박찬양 박철우 박태만 박하순 박현미 박현민 박현희 박홍석 박희선 박복순 배경원 배덕민 배문섭 배승천 배안나 배윤주 배진숙 백미라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연희2 백윤희 백재선 서기현 서남교 서동석 서명순 서명아 서미선 서민영 서민희 서봉경 서옥영 서유나 서은수 서정용 서주형 석지윤 선혜란 성정현 성창기 성희옥 소현미 손동각 손병갑 손성권 손성한 손은경 손은주 손자경 손제주 손주영 손준희 손혜연 손환목 손희경 송기호 송무림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우영 송중호 송창국 송현정 송효경 신미현 신복순 신봉준 신수정 신수정2 신숙희 신순영 신승애 신연실 신영근 신원정 신은덕 신은희 신임식 신점숙 신진 신현훈 심미경 심보름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인실 심정구 안경모 안남희 안문필 안바라 안병호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영춘 안정애 안정은 안종녀 안준희 안지 안향미 안희옥 양무현 양석주 양수경 양수정 양은근 양유진 양이승 양인수 양정화 양현준 어수진 엄재균 엄주철 여준민 오미영 오민정 오보람 오상만 오세령 오영철 오원주 오은영 오장환 오정자 오정희 오지은 오진희 옥샘 우승명 우인숙 원성현 위순월 유남숙 유문수 유미선 유보배 유선희 유애리 유영순 유창재 유혜경 유희준 윤경훈 윤기범 윤길중 윤동구 윤명성 윤미라 윤미선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승용 윤승원 윤이용 윤인진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준서 윤호진 윤화숙 윤희 이강수 이건희 이건호 이건희 이경덕 이경아 이경윤 이경윤 이경훈 이경훈2 이경희 이계삼 이광만 이광재 이규식 이근희 이금희 이금희2 이기순 이길용 이나라 이동은 이동진 이두혁 이라나 이라라 이리나 이미나 이미리암 이미영 이미영2 이미정 이비함 이상림 이상준 이서윤 이서준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선희2 이상호 이성희 이소영 이소정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수현 이순웅 이승민 이승훈 이말찬 이연욱 이연주 이영란 이영미 이우현 이원진 이유미 이유진 이윤경 이윤욱 이윤주 이윤지 이은숙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2 이인영 이장우 이재령 이재승 이정실 이정은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란 이종실 이종현 이주오 이주욱 이준필 이준범

후원방법 안내

1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아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극단판**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와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은2 이지환 이진실 이진영 이진영2 이진주 이찬미 이철우 이태곤 이학인 이한숙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욱 이현진 이형록 이호연 이호영 이호중 이회국 이효정 이효진 이희은 임나미 임덕심 임동근 임산하 임소연 임영희 임원택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주현 임재원 임춘학 임하연 장경주 장귀분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영 장성권 장성아 장순임 장욱란 장원 장정아 장정환 장혜미 장혜미2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기성 전대진 전문갑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옥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대훈 정동식 정명진 정미란 정민구 정병순 정상엽 정상욱 정선애 정선옥 정성락 정성철 정승이 정연숙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영호 정용근 정용안 정용훈 정우중 정우준 정운영 정유진 정은경 정익화 정재훈 정재훈2 정종권 정종화 정종훈 정지영 정지혜 정진영 정진이 정창조 정택용 정현강 정현진 정현찬 정혜림 조경애 조미숙 조미숙2 조미연 조미정 조봉현 조사량 조선호 조성진 조승하 조원일 조윤경 조윤실 조윤성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응현 조이라 조자영 조재범 조하나 조희진 조현경 조현수 좌동엽 좌미경 주상원 주상희 주영은 주용춘 주은아 지덕근 지세진 지암메디테크 지영숙 지혜름 진영옥 진태원 차순정 차종원 채이배 천성호 천영희 천종민 천진수 초롱잔디(김성호) 최귀선 최동호 최미란 최병훈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선호 최승우 최영숙 최영식 최영은 최영자 최우영 최윤선 최은경 최은숙 최은아 최재민 최재호 최재희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정은2 최정희 최찬일 최하정 최한별 최현정 최현진 최혜영 하경남 하정자 한경훈 한남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상엽 한선희 한성안 한송희 한양재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숙자 허신행 허영신 허란수 허정일 허진태 허창 허효재 현정민 홍도순 홍성미 홍성미2 홍성호 홍승대 홍순희 홍영선 홍영희 홍은전 홍은진 홍주영 홍진표 홍철기 홍혜리 황무초(무밍) 황성윤 황승미 황정희 황진미 황하연 황혜전 황희준

계좌이체 후원인

강귀화 강수혜 고명선 고명선 공한복 공공운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김도현(비마이너) 김미선 김선심 김연정 김용철 김용철 남완승 대한불교조계종 대성사 류동훈 박경선 박현규 사랑의후원금 서금석 손애리 송영자 신동길 신동길 엠알엠글로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선실 오장환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수현 윤종배 윤지형 이동환 이한진 이현숙 이현우 이형욱(부개성누) 이효상 이효상 인정환 (재)아름다운동행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전윤경 전준규 정옥순 조광배 종로장애인복지관 주승노 착한콜위드고 최상희 허병권 활미향 황재숙 희망열차(김낙현)

<노들로 들어온 선물>

- 8월 • 정성룡 비타500 / **이창현** 주방용품(비닐, 행주 등) / **우정자** 커피믹스 / 김성애 비타500 / **임정한** 건강음료 / **양평복지관** 복분자 음료 / **이영미** 책 32권
- 9월 • **조진영** 미에로화이바 / **한살림** 쌀 3상자 / **이음책방** 복숭아, 아오리 사과 / **후원인 미상** (지호한방삼계탕) 쌀 10포대 / **로맨스조** 쿠키 / **서경숙** 비타500, 초코파이 / **이그드라실** 이건우 꽃바구니 / **송병준** 박카스 / **음향자유** 맛있는 포도 / **자승스님** 책 2권 / **학봉장학회** 홍삼엑기스, 아사히베리캔디 / **가을** 기저귀 / **성미산학교** 배, 고추장, 된장 / **김효영** 차 세트
- 10월 • **길인순** 비타500 / **구민재** 각종 생활 용품 / **음향자유** 고구마 3박스 / **한살림** 쌀 6상자(10kg) / **새벽지기센터** 비타500 / **오하나** 고구마 / **금민정** 커피믹스



노란들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실사출력, 인쇄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일터, 서로의 꿈이 상생하는 곳, 모두를 위한 들판을 꿈꿉니다.

디자인 + 인쇄 · 실사출력 · 타이벡
T 02.469.9101 H www.norandp.co.kr

NEW BRAND 공생공장

타이벡 made with DuPont™ Tyvek®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아가며 만드는 곳

‘공생공장’은 타이벡 원단 소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기존 일회용 현수막을 대체하는 노란들판만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노란들판만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공생공장은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의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노란들판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제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Waterproof · Super Light · 100% Recyclable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P www.ncil.or.kr
EMAIL nodl@hanmail.net SNS @nodcil
TEL 02-766-9103 MOBILE 010-5766-9103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P www.420pan.or.kr
EMAIL centerpan@420pan.or.kr
TEL 02-6082-6420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격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한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T 02-766-9120 F 02-6937-1701 E nodeul@gmail.com

모자는 운명과 세상을 향해 용기를 냈다. 그들의 용기는 동정을 구하는 호소가 아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물음이다. 사회시스템에 대한 증언이다. 그들의 용기가 곤경의 비바람을 막는 사회적 우산을 만드는 징검다리가 되면 좋겠다. 그 우산 아래서 그들도, 발달장애 가족들도 그리고 나와 당신도 내리는 비를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엄마야』, 오월의봄, 2016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 지음

